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청년 1인 가구의 근린환경 내
‘혼자’ 또는 ‘공유’ 하는
생활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통해
서울시 대학동 분석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imbedded in ‘alone’ or
‘together’ spaces of everyday lives
used by young single household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제 효 연

청년 1인 가구의 근린환경 내
‘혼자’ 또는 ‘공유’ 하는
생활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통해
서울시 대학동 분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세 훈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제 효 연

제효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원장	김 승 회	(인)
부위원장	김 세 훈	(인)
위원	박 소 현	(인)

초 록

최근 대한민국에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따로 또 같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혼자’ 또는 ‘공유’하는 양가적 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과 같은 ‘혼자’ 하는 문화를 대변하는 신조어도 출현했고, 더불어 코리빙, 소셜다이닝 등의 ‘공유’ 문화도 등장했다. 또한 SNS 등의 온라인 네트워킹 및 협력적 소비를 실천하는 공유경제는 현대 사회에 매우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청년은 ‘혼자’와 ‘함께 하는 삶’ 모두를 가장 일상화하고 있는 세대이며, 그들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를 양산함으로써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셰어하우스의 ‘하우스(House)’와 혼코노의 ‘코인노래방’처럼 이러한 키워드들에는 그 속에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듯, ‘혼자’와 ‘공유’하는 현상은 생활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공간적 범위에서 조명해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현상의 한 연구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유공간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려는 움직임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간만 함께 쓰는 공용(共用)공간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혼자서’ 술 한잔하려는 사람들은 지극히 사적(私的) 공간인 집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 속에서, 즉 공간을 공유(共有)하면서 혼술하기 위한 공적(公的) 공간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간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그 복합적 특성을 잘 읽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간이 이용하는 공간의 성격을 사적(私的)공간, 개인(個人)공간, 그리고 공유(共有)공간, 공공(公共)공간, 공용(供用)공간, 나아가 제3의 공간(Third place), 역(闕)공간 등의 용어로 분류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사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용어들로는 함께 쓰는 공간에서도 혼자 활동할 수 있고 개인 공간에서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까지 다루기 힘들다. 즉, ‘혼자’ 하거나 ‘공유’하는 대상을 활동으로 볼 것인지, 공간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다양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이 공간에서 ‘혼자’ 또 ‘공유’하며 살아가는 생활 행태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대학동이라는 청년 삶의 공간을 한 사례로 적용하여, 따로 또 같이 이용하는 생활공간 특성을 실증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은 전체 인구 중 20·30대 비율이 46%이며,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 비율이 66.4%에 달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동네다.

연구의 진행 절차는 첫째, 혼자 및 공유문화의 개념과 공간적 논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의가 가지는 한계와, 새로운 공간 분류체계 설정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둘째, 이론고찰을 통해 도출한 연구자의 논리를 토대로, 공간에서 ‘혼자’, ‘공유’하는 행태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하고 있는 대학동이라는 근린환경에 적용·조사·분석하여,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보고, 더불어 실제 청년들이 따로 또 같이 공간을 이용하는 특성을 살펴본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분석의 틀인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는, 이론고찰을 통해 도출한 논리를 토대로 알고리즘과 매트릭스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6가지 행태 유형이 도출된다. A유형은 다른 사람과 공간에서 교류하는 유형, B유형은 다른 사람과 한 공간과 활동을 다른 시간에 간접 공유하는 유형, C유형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나 활동을 간접적으로 공유하는 행태유형이다. D유형은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 있지만 혼자서 활동하는 유형, E유형은 다른 사람과 타시간에 함께 쓰는 공간에서 현재 혼자 활동하는 유형, F유형은 어느 것도 공유하지 않는 지극히 혼자 쓰는 공간에서 혼자 활동하는 유형이다. 6가지 행태유형은 차례로 활발한 공유관계에서 점차 개인성이 강해지는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한 행태-공간 분류체계라는 분석틀을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근린활동일지’ 설문조사다. 총 3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가 평일 하루에 이용한 모든 공간·시설과 활동을 양식에 맞춰서 차례로 적도록 하는데, 이는 순서대로 노드가 되어 하루에 많은 노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공간에서의 노드와 함께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

동도 기록하는 인터넷 공간 활동일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청년들의 근린활동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우선 질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출할 항목을 설정하고, 응답 데이터를 입력(코딩)하며, 노드별로 '행태 유형'을 적용하고 위치 좌표를 기록한 후, 앞서 설정한 도출 항목에 맞춰 데이터를 처리하여 맵핑, 차트, 표, 다이어그램의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이때 행태 유형을 적용하는 기준은 근린활동일지조사를 통해 얻은 함께 활동한 사람 수, 공간에 있던 사람 수, 공간·시설 특성, 활동 특성, 4가지에 대한 정보다.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근린활동일지 조사를 통해 대학동 청년 1인가구를 대상에 적용하여 도출한 특성은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

첫째, 인간 활동에 대한 특성이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하루 동안 근린환경 내 공간·시설에서 활동하는 행태유형의 빈도 및 지속시간을 알아본다. 그리고 식사, 음주, 공부, 여가, 이동, 구매, 휴식이라는 총 7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높은 공유도에서 개인성이 강해지는 스펙트럼을 가지는 6가지의 행태 유형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공간 이용 특성이다. 각 행태유형별로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하루 동안 근린 내에서 많이 이용한 공간·시설을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참여자가 이용한 모든 공간·시설 유형에 대해서 6가지 행태유형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실 공간과 인터넷 공간의 행태유형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현실 공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이 실제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관계를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즉, 청년들이 실제 노드에서의 행태유형과 인터넷 공간 접속의 동시적 상관관계와, 인터넷 공간의 활동이 현실 공간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O2O(Online to Offline), 타시적 상관관계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각종 공유의 움직임과 공유공간 계획이 쏟아져 나오는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 A 행태유형, 즉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에서 교류하는 경우

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가지는 많은 수단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를 사례로 한 본 실증연구를 통해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과 공간 이용 양상은 매우 다변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A유형을 지향하며 계획·양산하는 공간이 정답이 아님을 시사한다. 실제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철저히 고립된 혼자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기회에 노출된 채로 혼자 활동하기를 택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도 활동을 공유하기도 했다. 공유경제가 현대 사회의 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아가면서, 실제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나눔카 등을 일상화하며, 모르는 사람과 다른 공간에서 간접적으로 활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혼자 활동하고 있을 때 인터넷이라는 공유공간에 접속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할 때보다 훨씬 빈번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같이 있지만 외로울 수 있는 모순된 현대 사회 모습의 입증이다.

본 연구는 혼자 사는 청년이 밀집한 대학동이라는 한 근린환경 사례에서 청년 1인 가구가 ‘혼자’ 또 ‘공유’하며 살아가는 행태와 공간적 특성을 다각도에서 실증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제시한 다각도의 해석 방법인 행태-공간 분류체계를 추후 확장된 인간 대상 모델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 체계는 행태와 공간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앞으로 인간행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생활공간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 따로 또 같이, 공유공간,

청년 1인 가구, 근린환경

학 번 : 2017-25314

목 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 행태-공간 분류체계 논리 설정	5
2.1 ‘혼자’와 ‘공유’ 문화	5
2.1.1 양가적 사회양상	5
2.1.2 공간 키워드	8
2.2 공유공간 논의	9
2.2.1 선행 연구	9
2.2.2 공유경제	11
2.2.3 서울시 공유허브	12
2.3 기존의 공간 분류 논의	13
2.3.1 비공간적 공간	13
2.3.2 제 3의공간, 역공간	13
2.4 행태-공간 분류 필요성 및 논리	14
2.5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	15
 제 3 장 분석의 틀	
: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 구조화	16
3.1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16
3.1.1 행태-공간 논리 요소	17

3.1.2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매트릭스	18
3.1.3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20
3.2 행태 유형 해석 및 특징	29
3.3 행태 유형의 다중성	31

제 4 장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의 혼자·공유 특성

: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 적용	33
4.1 적용 모델 선정	33
4.1.1 대상지 선정 및 인구특성	34
4.1.2 대상지 역사 및 인구특성	35
4.1.3 대상지 공간적 현황	37
4.2 조사 및 분석방법	46
4.2.1 근린활동일지 조사	46
4.2.2 데이터 프로세싱	55
4.3 인간 활동 특성	61
4.3.1 행태유형별 발생 빈도-시간	62
4.3.2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68
4.3.3 소결	73
4.4 공간 이용 특성	74
4.4.1 행태유형별 이용된 공간·시설	74
4.4.2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비	82
4.4.3 소결	88
4.5 비공간 특성	89
4.5.1 실제공간-인터넷공간 행태유형 상관관계	89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92

부록	97
참고문헌	103
Abstract	106

표 목 차

〈표 1〉 혼자 및 공유의 대상으로서 ‘활동’과 ‘공간’의 개념 구분의 필요성 및 예시	3
〈표 2〉 혼자 및 공유문화의 공간 키워드 도출 예시	8
〈표 3〉 관련 연구의 공유공간 용어 정의 및 추구 가치	10
〈표 4〉 행태-공간 논리 요소	17
〈표 5〉 불가능 경우 : 소거 항목	18
〈표 6〉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매트릭스 및 도출된 여섯 가지경우	19
〈표 7-1〉 A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21
〈표 7-2〉 B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22
〈표 7-3〉 C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23
〈표 7-4〉 D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24
〈표 7-5〉 E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25
〈표 7-6〉 F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26
〈표 7-7〉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특징	27
〈표 7-8〉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다이어그램 및 특징	28
〈표 8〉 행태 유형의 다중성: 발생 ‘예시’ 도식화	32
〈표 9〉 근린활동일지조사 절차	47

〈표 10〉 설문지 구성 및 수집 항목	49
〈표 11〉 설문지 구성 및 수집 항목	52
〈표 12〉 연구참여자 소개 및 근린 생활시간 비율	54
〈표 13〉 행태 유형 적용을 통해 도출할 항목	55
〈표 14-1〉 노드별 행태유형 적용 기준	58
〈표 14-2〉 행태 유형 적용 기준 해석	59
〈표 15〉 실제 이용된 공간·시설 범주화 목록	75
〈표 16〉 실제 이용된 시설 내 구획 공간 목록	76
〈표 17〉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과 응답한 활동 내용	87
〈표 18〉 실제 공간-인터넷 공간 행태유형 상관관계 사례	91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4
〈그림 2〉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과 전망	7
〈그림 3〉 20·30대 1인가구 비율	7
〈그림 4〉 ‘혼자’ 라이프와 문화	7
〈그림 5〉 1인 생활에 대한 인식	7
〈그림 6〉 ‘공유’ 라이프와 문화	7
〈그림 7〉 공유경제 트렌드 분석 및 이미지	7
〈그림 8〉 나눔카 기업의 작동방식 도식화	11
〈그림 9〉 서울시 공유허브 포털	12
〈그림 10〉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위치	34
〈그림 11〉 대학동 청년 1인 가구 통계	34
〈그림 12〉 대학동 지역의 변천사	36
〈그림 13〉 관악구 대학동 위성지도	38
〈그림 14〉 대학동 주택유형	38
〈그림 15-1〉 대학동 토지 이용 계획	39
〈그림 15-2〉 대학동 주거용 시설 분포 현황	39
〈그림 15-3〉 대학동 건축물 주용도 분포 현황	40
〈그림 15-4〉 대학동 고시·학업 관련 시설	40
〈그림 15-5〉 대학동 저층부 상업시설 분포	41
〈그림 15-6〉 대학동 오픈스페이스	41
〈그림 16〉 대학동 공유 시설 분포 현황	44
〈그림 17-1〉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일레클’ 어플	45
〈그림 17-2〉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스윙’ 어플	45
〈그림 17-3〉 실제 대학동(신림로)에 주차되어 있던	

‘일레클’ 공유전동킥보드	45
〈그림 17-4〉 실제 대학동(서울대학교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스윙’ 공유전동킥보드	45
〈그림 18〉 대학동 커뮤니티 어플 ‘9동여지도’ 및 배달어플	51
〈그림 19〉 근린활동일지 응답 데이터 코딩 예시	56
〈그림 20〉 노드별 위치 좌표 기록 및 맵핑 과정	60
〈그림 21-1〉 총 발생 빈도	63
〈그림 21-2〉 총 발생 시간	63
〈그림 21-3〉 시간대별 총 발생 빈도	63
〈그림 21-4〉 시간대별 총 발생 시간	63
〈그림 21-5〉 시간대별 행태유형 발생빈도	63
〈그림 21-6〉 평균 노드별 지속시간	63
〈그림 22-1〉 A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65
〈그림 22-2〉 B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65
〈그림 22-3〉 C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66
〈그림 22-4〉 D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66
〈그림 22-5〉 E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67
〈그림 22-6〉 F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67
〈그림 23-1〉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70
〈그림 23-2〉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활동 공유 여부	71
〈그림 23-3〉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공간 공유 여부	72
〈그림 24-1〉 A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77
〈그림 24-2〉 B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77
〈그림 24-3〉 C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77
〈그림 24-4〉 D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78
〈그림 24-5〉 E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78
〈그림 24-6〉 F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78

〈그림 25-1〉 모든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79
〈그림 25-2〉 A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80
〈그림 25-3〉 B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80
〈그림 25-4〉 D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81
〈그림 25-5〉 E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81
〈그림 26-1〉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비	84
〈그림 26-2〉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비: 활동 공유 여부 ..	85
〈그림 26-3〉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비: 공간 공유 여부 ..	86
〈그림 27〉 오프라인-온라인 행태유형 상관관계 Diagram	90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대한민국은 1인 가구 수 561만 시대로, 다인의 구성원이 한 가족을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구성 중 28.6%에 이르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근 미래에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¹⁾ 이러한 1인 거주형태의 급증 추세와 함께, 혼밥·혼술과 같은 ‘혼자’하는 생활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출현하는 등 나홀로 문화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코리빙, 소셜다이닝 등의 공유문화를 대변하는 신조어도 등장하였고, 더불어 협력적 소비라고도 불리는 공유경제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SNS 등의 온라인 네트워킹 문화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여 있다.

1) 장래가구추계 및 인구총조사('17, '15 KOSIS, 통계청)에 의함

이렇게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따로 또 같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양가적 문화 현상은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들은 이와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양산함으로써 정체성을 표출하며, ‘혼자’ 또는 ‘함께’ 하는 삶을 일상화하고 있는 세대다. 실제로 현재 1인 가구의 중 청년층의 비율은 다른 세대보다 높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해 만들어낸 키워드에는 혼코노²⁾의 ‘코인노래방’과, 공유오피스의 ‘오피스(Office)’처럼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 이는 ‘혼자’와 ‘공유’하는 현상을 공간적 범위에서 다뤄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 대한민국 청년 1인 가구의 일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나는 ‘혼자’ 또는 ‘공유’라는 양가적 문화 현상을 실제 삶의 공간인 근린환경에서 조명해보려 한다.

그런데 현재 해당 현상과 관련되어 한 연구대상으로 논의되고, 계획·양산되고 있는 공유공간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려는 움직임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간만 함께 쓰는 공용(共用)공간으로 이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혼자서’ 술 한잔하려는 사람들(혼술러)은 지극히 혼자만의 공간, 즉 사적(私的) 공간인 집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 속에서, 즉 공간을 공유(共有)하면서 혼술하기 위한 공적(公的) 공간을 찾을 수도 있다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간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그 복합적 특성을 잘 읽어내기 어렵다.

2) ‘혼자 코인노래방에 가다’의 줄임말

즉, 인간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사람과 활동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질문인 ‘혼자’와 ‘공유’라는 ‘인간의 타자와의 관계행위’의 대상을 ‘활동’(사람 간의 관계행위)으로 접근할 것인지, ‘공간’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양해지는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사적(私的)공간, 개인(個人)공간, 그리고 공유(共有)공간, 공공(公共)공간, 공용(供用)공간, 나아가 제3의 공간(Third place), 역(閼)공간 등의 용어들로 공간을 분류하고 있으나, 활동과 공간이라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모호하게 정의·사용되는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간적 논의는 공간을 이용하는 인간의 다층적인 행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에서 ‘혼자’ 또 ‘공유’하며 살아가는 생활 행태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새로운 논리적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대학동이라는 청년 삶의 공간 사례에 적용하여, 청년의 복합적인 혼자 또는 공유하는 근린환경 이용 ‘행태’와 ‘공간’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 생활공간의 깊이 있는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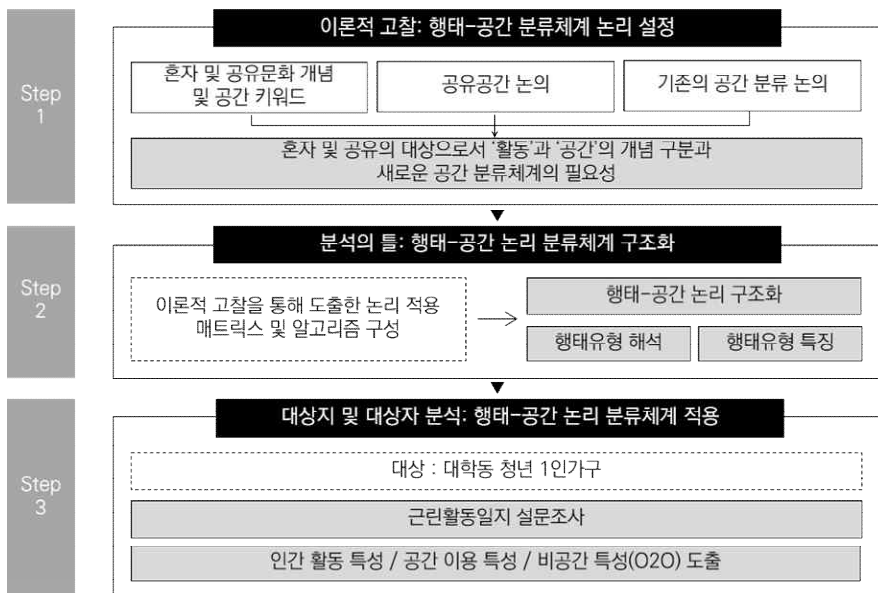
	활 동	공 간	활 동	공 간
공유			공유	팀웍 개인작업 코워킹 스페이스
			혼자	
혼자			혼술	술집 공유
				집 혼자

〈표 1〉 혼자 및 공유의 대상으로서 ‘활동’과 ‘공간’의 개념 구분의 필요성 및 예시

1.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이다. 대학동은 전체 인구 중 20·30대 비율이 46%이며,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 비율이 66.4%에 달하는³⁾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주거지역이다.

연구의 진행 절차는 첫째, 혼자 및 공유문화의 개념과 공유공간 논의, 그리고 기존의 공간 분류 논의를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본 현상과 관련된 이론이 갖는 한계점과, 새로운 공간 분류체계 설정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둘째, 이론고찰을 통해 도출한 연구자의 논리를 토대로, 공간에서 ‘혼자’, ‘공유’하는 행태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구조화하여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청년 1인가구가 밀집하고 있는 대학동이라는 근린환경에 ‘근린활동일지’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적용·조사·분석하여 실제 청년들이 따로 또 같이 공간을 이용하는 특성을 크게 인간 활동 특성, 공간 이용 특성, 비공간 특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3) 연령별 인구구성 및 가구 구성('16, KOSIS, 통계청)에 의함

제 2 장 이론적 고찰 : 행태-공간 분류체계 논리 설정

2.1 ‘혼자’와 ‘공유’ 문화

2.1.1 양가적 사회양상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 즉 1인 가구의 비율은 다양한 원인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⁴⁾ 1인 거주형태의 급증 추세와 함께 나홀로 문화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는 한편, 함께 사는 삶이 강조되며, 협력적 소비라고도 불리는 공유경제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SNS 등의 온라인 네트워킹 문화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여 누리어지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의 싱글라이프를 다루고 있고⁵⁾, 「모두의 주방」이란 타이틀로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⁶⁾

4) 장래가구추계(‘15, KOSIS, 통계청)에 의함,

2017년 기준 28.6%에서 2045년 36.2%로 예상됨

5) 방송사 MBC 예능 프로그램, 2013년부터 편성 현재 방영중
(Naver 제공, 방송 프로그램 정보)

6) 방송사 Olive 예능 프로그램, 2019년부터 편성 현재 방영중
(Naver 제공, 방송 프로그램 정보)

이렇게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따로 또 같이’의 양가적 문화 현상은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현재 1인 가구의 중 20대, 30대의 비율은 각 17.2%, 17.6%로⁷⁾ 다른 세대보다 높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양산함으로써 정체성을 표출하며, ‘혼자’ 또는 ‘함께’ 하는 삶을 일상화하고 있는 세대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논의는 그들의 식생활, 소비생활, 사회적 관계 등 많은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청년의 심리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의 ‘심리’를 설문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20대의 고독 지수는 77.6점으로 ‘치열한 경쟁시대’를 가장 큰 이유로 고독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⁸⁾ (최근 대한민국 청년에게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주거빈곤’, ‘실업’, ‘n포세대’로, 실제 서울 청년 1인 가구는 36.3%의 높은 주거빈곤율⁹⁾을 보이고 있고, 전체 실업률이 4%인데 청년 실업률은 10%에 이르는 수치를 보인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대인관계, 내집마련 등을 포기하며 9포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른 한편,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의 결과는 ‘만족’의 비중이 20대 여성에 82.7%, 남성 71.2%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¹¹⁾ 이는 상호 모순적인 양상인데, 이를 대변하는 듯 인기 있는 한 심리학 서적 제목은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이다.¹²⁾

이러한 양가적인 성향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키워드들 속에서도 알 수 있다. 학술 검색과 소셜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 방법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수집한 관련 키워드는 <표 2>에 수록하였다.

7) 인구총조사(‘17, KOSIS, 통계청)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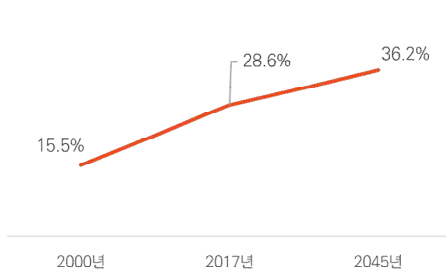
8) 20대 성인남녀 2613명을 대상으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 (이영진, 2018.07.14., 시사포커스, “외로운 대한민국 20대, 고독지수 77.6점”)

9) 주거빈곤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하(반지하), 옥상(옥탑)거주 가구, 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 기타 거주 거주 가구를 이룸(‘16, KOSIS,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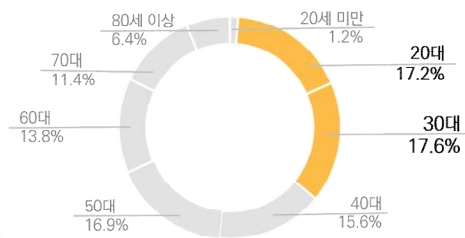
10) 경제활동인구조사(‘18.08, KOSIS, 통계청)에 의함

1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18년에 발표한 한국 1인가구 통계 보고서 (KB경영연구소, 2018)

12) 심리학자 피터 홀린스의 에세이, 2018년 4월 1주 베스트셀러 11위를 차지한 바 있음(예스24, 베스트셀러)



통계청 제공 장래가구추계에 의함('15, KOSIS)



통계청 제공 인구총조사에 의함('17,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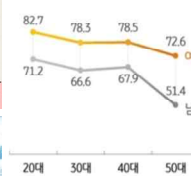
〈그림2〉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과 전망



〈그림3〉 20·30대 1인가구 비율

연령대·성별 1인생활 만족 비중

1인생활의 장점



	1인1호	1인2호	20대	30대	40대	50대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78.5	72.4	70.4	74.9	76.1	65.8
혼자만의 여유	53.2	70.6	73.9	72.8	65.5	68.5
가족 부담 부담 없음	70	17.7	15.5	15.8	18.5	20.8
직장/직업 등 활동 가능	70	14.5	19.0	13.1	12.9	14.6
경제적 여유	72	13.8	12.4	12.9	18.1	11.5
가사 등 집안일 부담	5.9	11.9	8.9	10.6	8.9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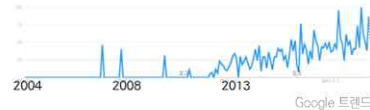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한국 1인가구 통계 보고서

〈그림4〉 '혼자' 라이프와 문화



〈그림5〉 1인 생활에 대한 인식

공유경제, 구글 트렌드 분석



공유경제 이미지



엠브레인(www.panel.co.kr)

〈그림6〉 '공유' 라이프와 문화

〈그림7〉 공유경제 트렌드 분석 및 이미지

2.1.2 공간 키워드

무수한 문화적 키워드 속에서 공간적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그중에 공간을 포함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본 것이 <표 2>이다. 우선 키워드 속에 포함된 혼자(혼)와 공유라는 수식어는 사전적 의미로 먼저 살펴보면, 혼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동떨어져”라는 상태 혹은 행위, 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뜻한다.¹³⁾ 이 두 단어는 모두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라는 인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외에 공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과정의 예를 들면, ‘혼행’은 ‘혼자 여행한다’라는 뜻으로 행위 외에 구체적인 도시공간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데, ‘혼코노’는 ‘혼자 코인노래방에서 노래 부른다’라는 뜻으로 분명한 시설을 내포하고 있었다. ‘혼술’은 ‘혼자 술을 마신다’는 행위와 동시에 ‘혼자 술집(혹은 집 등의 어느 장소)에서 술을 마신다’처럼 생활공간을 간접적으로 표출한다. 마찬가지로 공유문화에서도 ‘쉐어하우스(Sharehouse)’처럼 ‘집(House)’이라는 특정 공간을 포함하는 것이 있다. ‘소셜다이닝(Social dining)¹⁴⁾’은 함께 식당(혹은 어느 장소)에서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불특정 공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다수의 키워드가 공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처럼 혼자 또는 공유문화 현상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분 포함 요소	혼 자			공 유		
	활동			활동		
	그 외	공간	불특정 공간	그 외	공간	불특정 공간
키워드	혼행 1코노미 나홀로족 혼족 독신	혼코노 카공족	혼밥 혼술 혼영 독거 나혼자산다	정보공유 지식공유 문화공유 공유경제	공유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쉐어하우스 모두의주방	소셜다이닝 코워킹 코리빙 카셰어링 (나눔카)

<표 2> 혼자 및 공유문화의 공간 키워드 도출 예시

13) ‘혼자’와 ‘공유’의 사전적 의미(Naver 제공, 표준국어대사전)

14)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Naver 제공, 영어사전)

2.2 공유공간 논의

2.2.1 선행 연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혼자 및 공유 생활문화에 공간 키워드가 다양한 만큼, 도시·건축·주거 등의 공간적 범위를 다루는 많은 분야에서 해당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그중 대표적인 한 연구대상이 공유공간이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유공간은 대체로 공용(共用)공간을 공유(共有)공간으로 통칭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금까지는 ‘공간’의 공유 여부가 공유공간을 정의하는데 큰 하나의 기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커뮤니티,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였다. 황미영(2018)은 이를 만남이라고 표현했고, 장수정(2016)은 사회적 연결성, 경험 공유, 윤정혜(2001)는 이웃 관계, 박형수(2013)는 커뮤니케이션, 김도연(2015)은 커뮤니티, 오이현(2016)은 커뮤니케이션 등, 최준환(2016)은 커뮤니티, 지예진(2017)은 공동체 등으로 그 가치를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의 형성·나눔·공유가 현대 사회의 공유공간이 가지는 본래 목적이자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획·양산되고 있는 공유공간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려는 움직임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고되며, 이는 앞서 1.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 밝힌 연구 질문인 ‘혼자’와 ‘공유’라는 인간의 타자와의 관계행위의 대상을 ‘활동’(사람 간의 관계행위)으로 접근할 것인지, ‘공간’으로 접근할 것인지의 두 사항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연구자	년도	연구 대상	공유공간의 용어 정의 및 사용	공통적 가치
황미영	2018	공공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도시내 공유지로서 지식을 소유가 아닌 사용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지식정보의 공유공간, 사회적 공유플랫폼의 역할, 공유공간으로서 접근성과 공공적 성격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성격
장수정	2016	주거·숙박 업무·상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의 구체적 정의 없으나, 주거 공간, 숙박시설, 업무공간, 상업공간을 공유공간에 분류하여 공간공유방식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연결성 강화 및 공간 공유를 통한 경험 공유에 의한 사회적 가치
윤정혜	2001	집합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이란 넓은 의미로 단지 내 거주자들이 쓰는 모든 시설과 영역을, 좁은 의미로는 공유건물 내에 제공된 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이익 : 친밀한 이웃 관계 형성
박형수	2013	공유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스트하우스: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주거문화 공유주택(WOOZOO 4호점): 공유공간을 거실, 부엌, 화장실, 다락방, 마당, 옥상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증가
김도연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은 주방과 식당, 라운지, 로비, 화장실 및 샤워실이며, 공유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유시설의 구성을 제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주거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줌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일본의 셰어하우스 개념의 도입
오이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 로비공간과 공유주택 복도, 공유공간 주위에 개인공간 구획 배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 유사 라이프스타일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짐, 입주자 외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 유도, 이웃간 상호 친밀도 형성
최준환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 거주자들이 기초 생활을 위한 공간, 통행 공간, 공동체 생활을 향유하는 공간, 공·사적인 정도와 실의 기능에 따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 중 거주자들의 커뮤니티가 발생하는 공간을 커뮤니티 공유공간으로 분류
지예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주택(셰어어스 에베네셀점): 기존 고사원을 리모델링한 2인/3인/6인 거주 형태의 총 19명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가 모여 커뮤니티를 이룸,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 형성, 소통과 연대를 통해 공유의 가치를 실현

〈표 3〉 관련 연구의 공유공간 용어 정의 및 추구 가치

2.2.2 공유경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또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로 일컬어지는 현상은 혼자 또는 공유하며 생활하는 공간을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2012년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62%가 공유경제에 매력을 느끼며, 그 혜택에 대해서 경제적 혜택의 항목에서는 비용 절약, 정서적 혜택으로는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너그러움과 공동체를 일원이 된다는 느낌을 순서대로 높게 꼽았다고 한다(한상엽, 2016). 공유공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경제 산업에서도 인간관계의 가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예로 나눔카 기업인 ‘쏘카¹⁶⁾’의 작동방식을 보면, 일정 거리마다 조성된 공유차량 정류소에서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이 이를 대여하고, 반납하면 다른 이용자가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한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이 동시간에 직접 교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정류소라는 한 공간과 자동차라는 매개체를 ‘공유’하며 타시간에 간접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가치 실현은, 사람 간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자’와 ‘공유’의 행태 분류체계를 위한 논리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그림 8〉 나눔카 기업의 작동방식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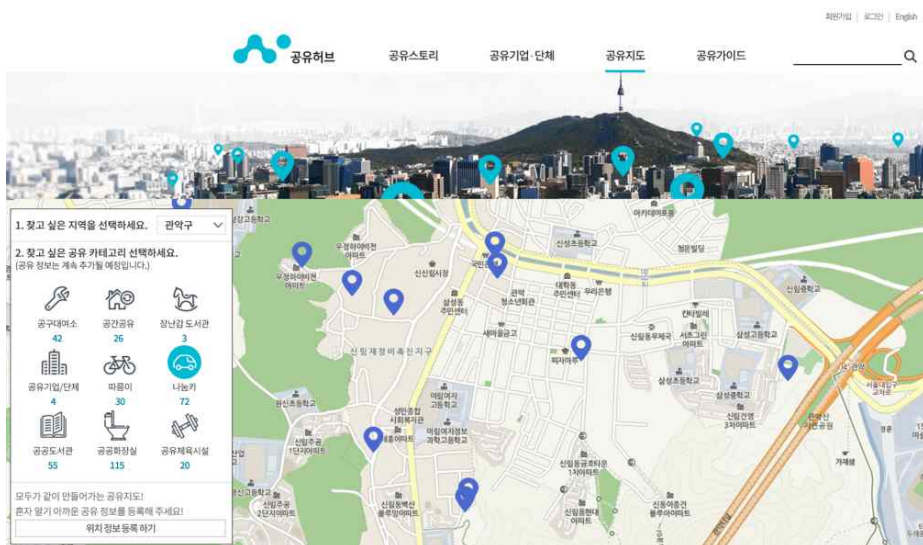
15) Naver 제공, 시사상식사전, 시사경제용어사전

16) 쏘카(Socar): 2011년 설립된 국내 카셰어링 기업(Naver 제공, NICE 기반 기업정보)

2.2.3 서울시 공유허브

서울시 공유허브는 각종 기업, 단체, 자치구들의 공유활동을 지원하고 공유의 확산과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운영하는 공유플랫폼이다.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공유 지도’에서는 서울시의 지역별 공유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공구대여소, 공간공유, 장난감 도서관, 공유기업·단체, 따릉이, 나눔카, 공공도서관, 공공화장실, 공유체육시설의 9가지 카테고리가 제공되고 있다.

앞서 2.1.2장에서 살펴본 공간 키워드들만큼 아직까지는 공간적 요소가 다양하지 못하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공화장실과 같이 ‘공공(公共)공간’도 공유 정보에 단순히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공유라는 항목을 포함하는데, 기타 모든 항목이 지도에 표시해서 제공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항목들도 공간을 공유하고 있긴 하다는 점에서 그 분류가 모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9〉 서울시 공유허브 포털¹⁷⁾ 제공 대학동 공유지도

2.3 기존의 공간 분류 논의

2.3.1 비공간적 공간

디지털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현대인의 생활 범위가 물리적 공간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¹⁷⁾ 행동하는 공간 범위가 인터넷 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까지 넓게 확산되었다. 김혜인(2018)은 인터넷이라는 ‘비공간적 공간(spacelessness)’이 Thomas Chapman(2006)이 말하는 ‘공공(公共) 공간’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Thomas Chapman(2006)이 제시하는 공공 공간은 지역적 범위를 넘어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이는 혼자 또 함께 생활하는 행태 및 공간 연구에 가상의 인터넷 공간까지 포함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2.3.2 제 3의 공간, 역공간

김혜인(2018)은 공공(公共)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장소, 즉,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나 완전한 공공공간이 아닌 사유화된 공간을 역(闕) 공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모호한 경계에서 파생되는 두 경계 사이의 ‘제3의 공간(Third place)¹⁹⁾’을 뜻한다고 하며, 이러한 공간은 현대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격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 공간에서 일어나는 ‘혼자’의 활동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공간의 공유와, 활동의 공유는 상호 배타적라는 본질적 특성을 다루는 논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17) 서울시 공유허브 포털, www.sharehub.kr (19.04.07 검색)

18) 박진아(2017)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라 가상세계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함 (박진아, 2017.07.03., 인문360, “날 선 시각: 좁아지는 사적 공간, 확장되는 공공공간”, https://blog.naver.com/jump_arko/221043166876)

19) 제3의 공간(Third place): Oldenburg(1997)는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으며, 적절히 교류도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 정의함 (Oldenburg, R. (1997). Our vanishing third places. Planning Commissioners Journal, 25(4), 6-10.)

2.4 행태-공간 분류 필요성 및 논리

이론고찰을 통해서 도출한 연구의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의 공유공간 논의는 ‘공간’의 공유 여부가 공유공간을 정의하는 큰 하나의 기준이었다.
- 공유공간의 논의가 커뮤니티, 인간관계의 형성·공유를 공통적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활동’ 공유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타시간에 일어나는 인간의 간접적인 공유 활동도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 역공간 논의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에서 ‘혼자’하는 활동은 다룰 가치가 있다.
- 디지털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이라는 비공간적 공간을 현대인의 생활 범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점들을 토대로 ‘혼자’ 또는 ‘공유’하는 행태가 일어나는 생활공간 특성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2.5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

현재 혼자서와 공유라는 양가적 문화 현상과 관련되어 한 연구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유공간은, 대체로 공용(共用)공간을 공유(共有)공간으로 단순 정의하고 통칭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공간 분류 논의에서는, 사적(私的)공간, 개인(個人)공간, 그리고 공유(共有)공간, 공공(公共)공간, 공용(供用)공간, 나아가 제3의 공간(Third place), 역(閼)공간 등의 용어로 인간이 이용하는 공간의 성격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로는 함께 쓰는 공간에서도 혼자 활동할 수 있고 개인 공간에서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까지 다루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많은 용어들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사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공간을 이용하는 복합적인 인간 행태를 이해하는 새로운 논리적 구조를 제시한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혼자’ 또는 ‘공유’하는 생활공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근린환경으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공유공간 연구는 주거·업무·상업의 시설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근린환경이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삶의 공간에서 다른 연구는 드물며, ‘공유’의 반대되는 개념인 ‘혼자’하는 삶의 행위와 공간은 함께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청년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간의 ‘혼자’와 ‘공유’하는 생활 행태를 실제 생활공간에서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사회문화적 현상을 실증을 통해 좀 더 실체에 가깝게 이해해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대한민국 청년 1인 가구 유형을 포함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한 도시설계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

제 3 장 분석의 틀 :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 구조화

3.1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행태와 그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 방법인 행태-공간 분류체계 설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논리를 도출한다. 이는 다음에서 행태-공간 논리 요소라 한다. 둘째, 정성적 판단을 통한 논리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가능한 경우의 수를 도출하고, 이를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매트릭스라고 한다. 셋째, 매트릭스에서 추출한 모든 경우의 수를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을 통해 재검증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유형을 ‘행태 유형’이라고 명명한다.

3.1.1 행태-공간 논리 요소

이론고찰을 통해서 도출한 연구의 논점(2.4장 참고)을 공통된 항목으로 정리하면 크게 공간의 공유 여부, 활동의 공유 여부, 간접적 공유활동의 중요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더 상위항목으로 분류하면 공간의 공유 여부와 활동의 공유 여부는 공유하는 행위의 ‘대상’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간접적 공유활동은 공유하는 행위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행태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자나 공유의 개념을 인간의 타자와의 관계 ‘행위’라고 보고, 그 ‘행위’를 ‘대상’과 ‘방식’ 두 가지 논리 요소를 통해 바라보고자 하였다.

혼자와 공유라는 행위의 ‘대상’으로서는 공간과 인간활동, 행위 ‘방식’으로서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을 포함하게 된다. 이때, 직접적·간접적 방식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 직접적 방식은 동시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본다(사람-사람). 간접적 방식은 타시간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즉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방식이다(사람-매개체-사람). 이때 매개체는 공간(특정 공간에 부속되는 물체들, 예를 들어 코인세탁시설의 세탁기도 제외)을 제외한 것들로, 타자와 간접적으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행위	혼자	공유
개념	인간의 타자와 관계행위	
행위 대상	인간활동	
	공간(인터넷 공간 적용가능)	
행위 방식	직접적(동시간)	
	간접적(타시간)	

〈표 4〉 행태-공간 논리 요소

3.1.2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매트릭스

혼자와 공유라는 행위 ‘대상’으로서의 공간, 활동에 대해 각각 직접적, 간접적 행위 ‘방식’을 적용하면 <직접적 공유함, 간접적 공유함, 어떤 방식으로도 공유하지 않음>의 3가지 경우가 될 수 있다. <표 6>의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매트릭스에서 이를 어떤 행위 ‘대상’을 어떤 행위 ‘방식’으로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다(□)로 표현하였다. 이때 ‘공간’, ‘인간활동’의 두 항목에 대해서 <직접적 공유함, 간접적 공유함, 어떤 방식으로도 공유하지 않음>의 3가지 경우 적용하면 가능한 총 경우의 수는 3X3로 9가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소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i. 첫째, 인간관계의 공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데, 공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가지다. 공간(인터넷 포함)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동시간에 타자와 공유하는 활동은 불가능하므로 제외된다.
- ii. 둘째, 공간과 인간활동 공유가 직·간접적 모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가지다. 두 방식은 상반의 개념으로 한 관계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며, 각기 독립적인 다른 사건으로 보기 위해 제외된다.

소거항목들은 연구자 임의의 정의가 아닌 진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불가능한 경우들이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도출되며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행위대상		인간활동		공간(인터넷공간 적용가능)	
행위방식		직접적	간접적	직접적	간접적
		동시간	타시간	동시간	타시간
소거 항목	i.	■	□	□	□
	ii.	□	■	■	□
		■	□	□	■

해석: ____행위 대상을, ____행위 방식으로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표 5> 불가능 경우 : 소거 항목

행위대상		인간활동		공간(인터넷공간 적용가능)	
					
행위방식		직접적	간접적	직접적	간접적
		동시간	타시간	동시간	타시간
TYPE	A	■	□	■	□
	B	□	■	□	■
	C	□	■	□	□
	D	□	□	■	□
	E	□	□	□	■
	F	□	□	□	□
TYPE	A	공간에서 사람과 직접 공유함			
	B	공간과 사람 간접 공유함			
	C	공간 공유하지 않음, 사람과 간접 공유함			
	D	공간 직접 공유, 사람 공유하지 않음			
	E	공간 간접 공유, 사람 공유하지 않음			
	F	공간과 사람 공유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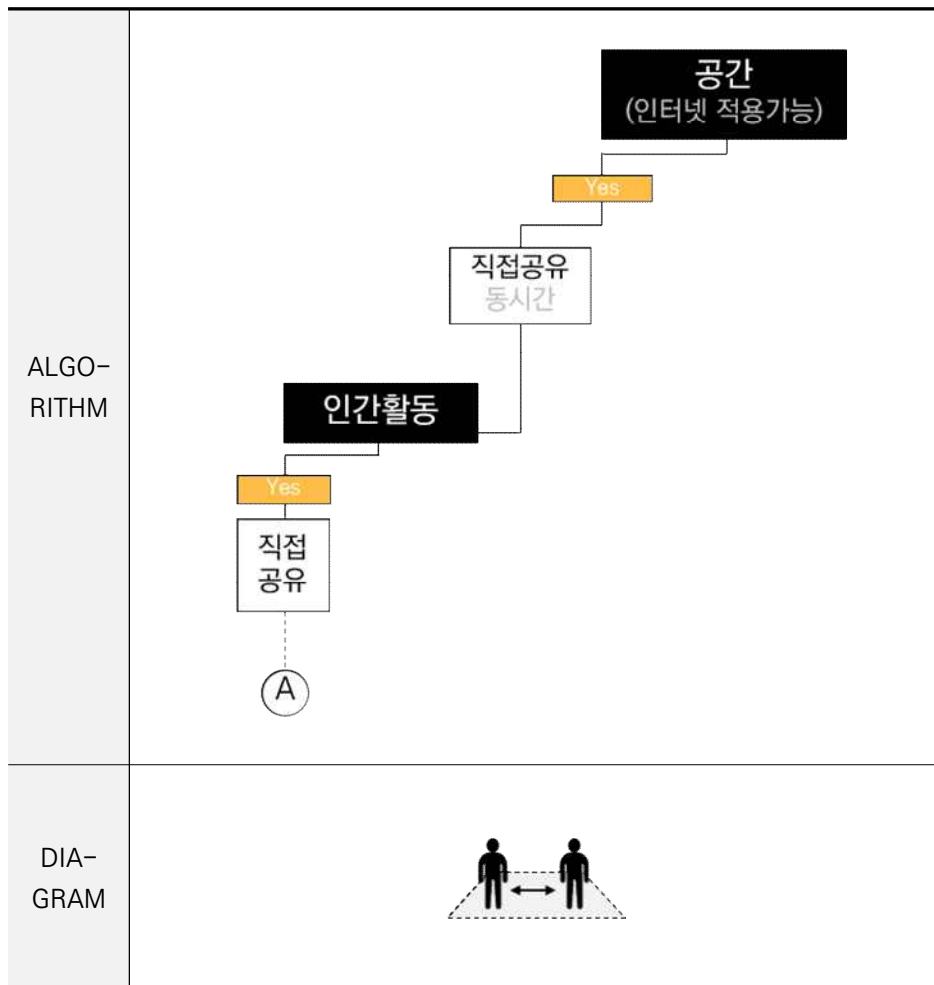
해석: ____행위 대상을, ____행위 방식으로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표 6〉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매트릭스 및 도출된 여섯 가지 경우

3.1.3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매트릭스를 통해 추출한 6가지의 경우의 수를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을 통해 재검증하였다. 알고리즘의 상위 검증항목으로 ‘공간’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인간활동’으로 내려는 구조로, 각각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방식으로 공유 여부를 확인해간다. <표 7>의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에서 어떤 행위 ‘대상’을 어떤 행위 ‘방식’으로 공유한다(Yes), 공유하지 않는다(No)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을 상위항목으로 설정한 이유는 앞서 매트릭스의 불가능 경우 소거항목에서 살펴보았듯,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타자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처럼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표현을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그 역인 ‘인간활동을 공유하지 않음→공간은 공유함’은 성립하기 때문에, 하위로 내려올수록 점차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즉 부정의 경우가 발생하여 간략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방식에 더 적합하다. 그러나 반대로 알고리즘을 구성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에서도 역시 매트릭스와 동일한 6가지 경우의 수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 6가지 유형을 ‘행태-공간 유형’보다 간략히 ‘행태유형’이라고 명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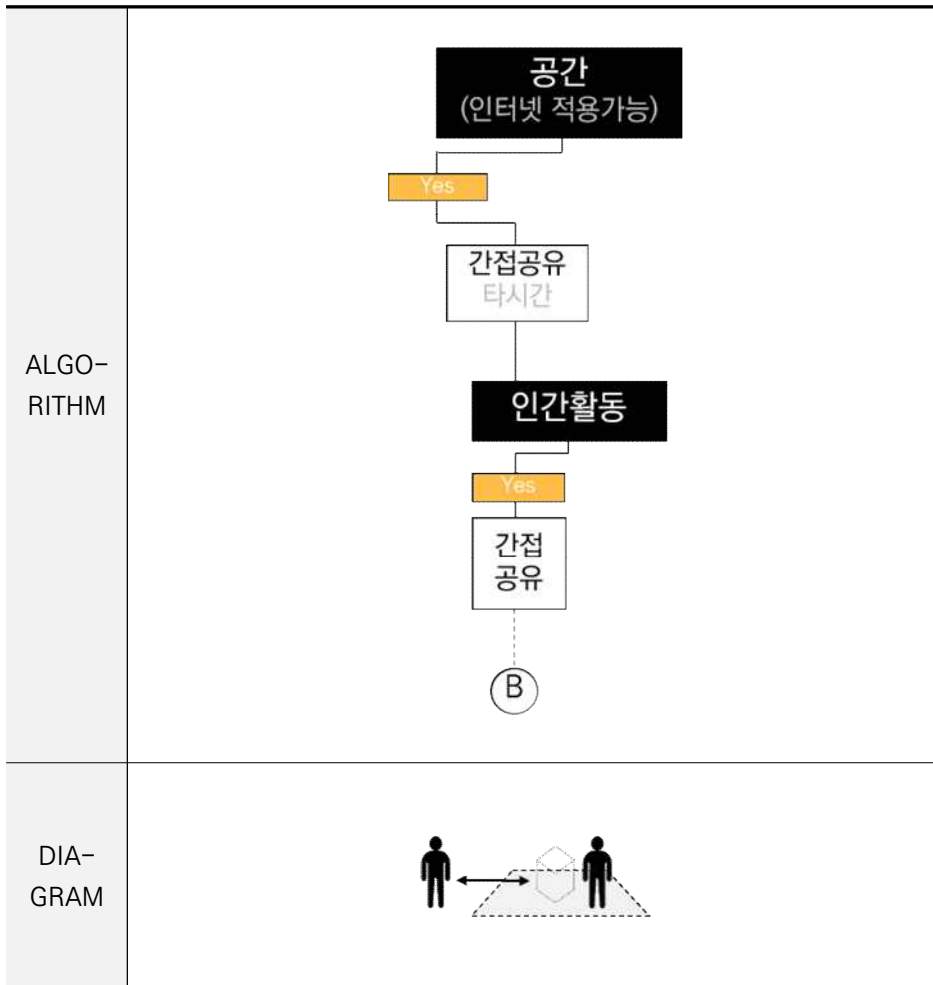


☐ Yes 공유한다 ☐ No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A 행태유형

- 공간과 활동을 직접 공유함
 -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공유 활동
- ex. 친구와 밥을 먹는다.
- ex. 카페에서 스터디 모임을 한다.
- ex. (인터넷) 메신저에서 친구랑 실시간 채팅 중이다.

〈표 7-1〉 A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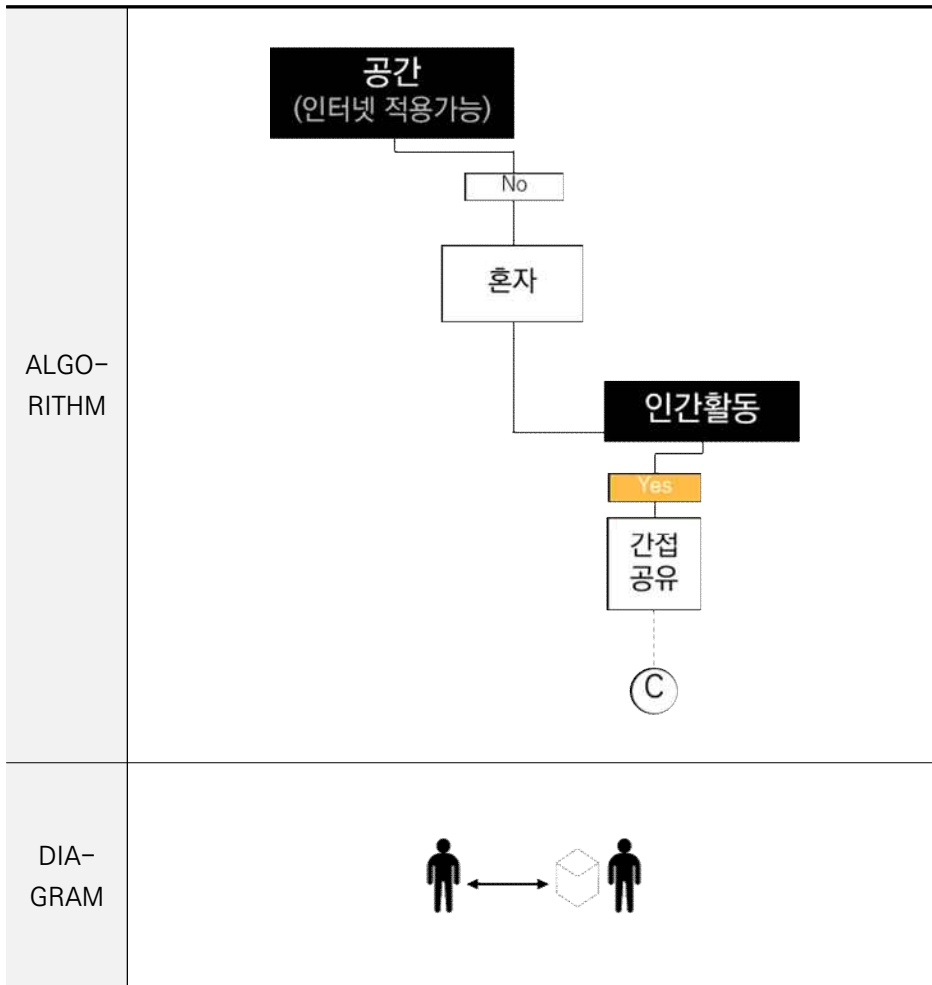


☐ Yes 공유한다 ☐ No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B 행태유형

- 공간과 활동을 간접 공유함
-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매개체를 통해 공유 활동
 ex. 따릉이 정류장에서 공유 자전거를 빌린다.
 ex. 공유창고에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
 ex.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는다.

〈표 7-2〉 B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 Yes 공유한다 ☐ No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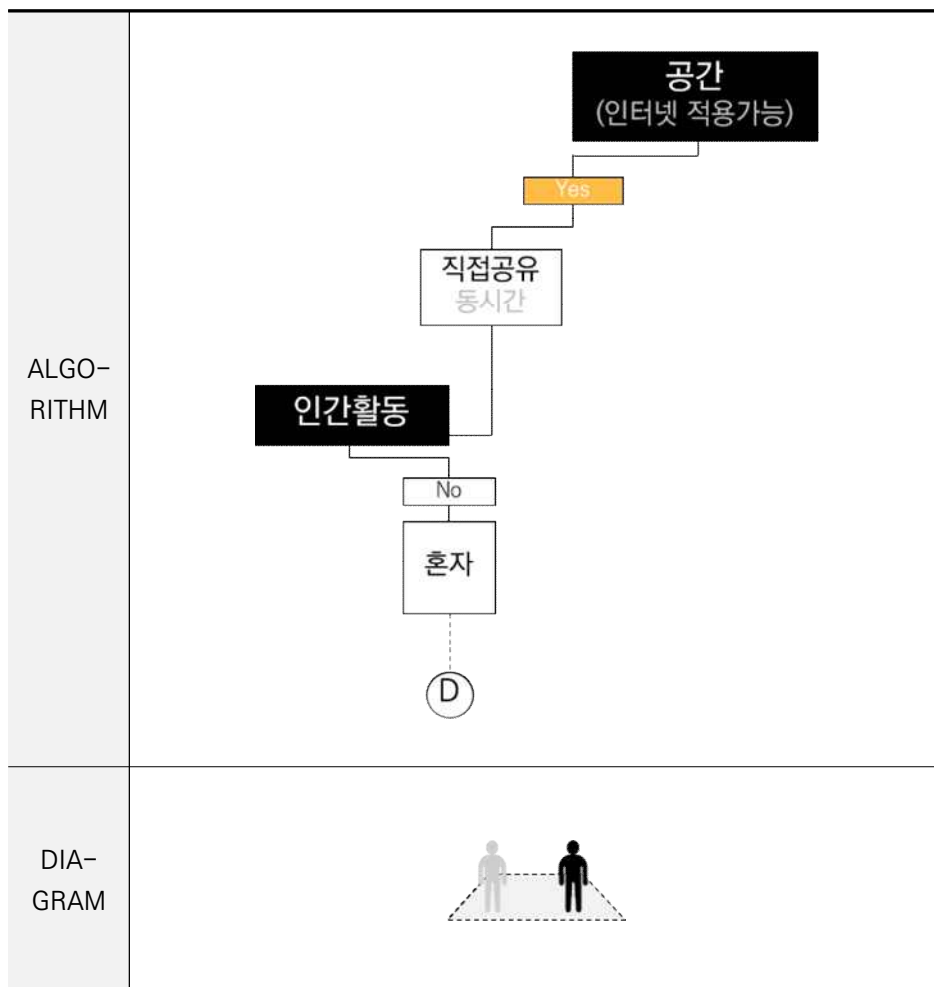
C 행태유형

- 공간 공유하지 않음, 활동을 간접 공유함
-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에 매개체를 통해 공유 활동

ex.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한다.

ex.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차량을 이용한다.

〈표 7-3〉 C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 Yes 공유한다 ☐ No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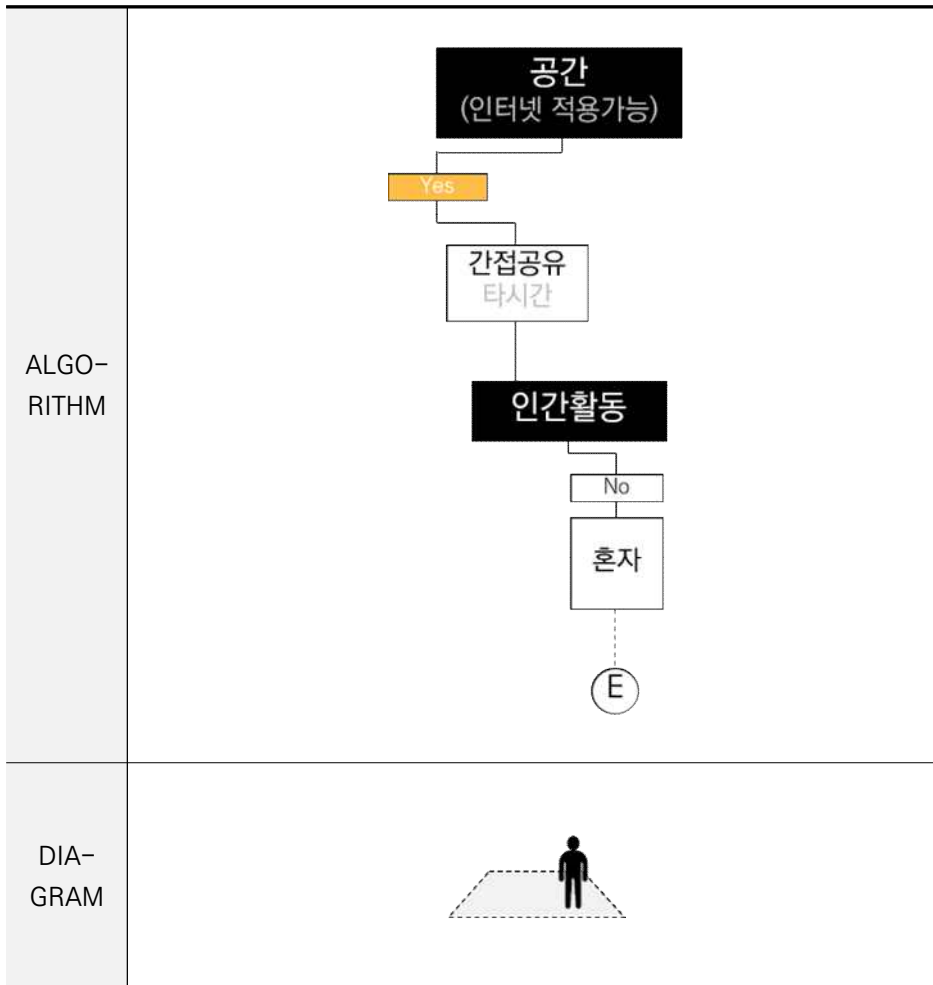
D 행태유형

- 공간 직접 공유, 활동 공유하지 않음
-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지만 혼자 활동

ex. 카페에서 혼자 공부 중이다.

ex. 술집에서 혼술한다.

〈표 7-4〉 D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 Yes 공유한다 ☐ No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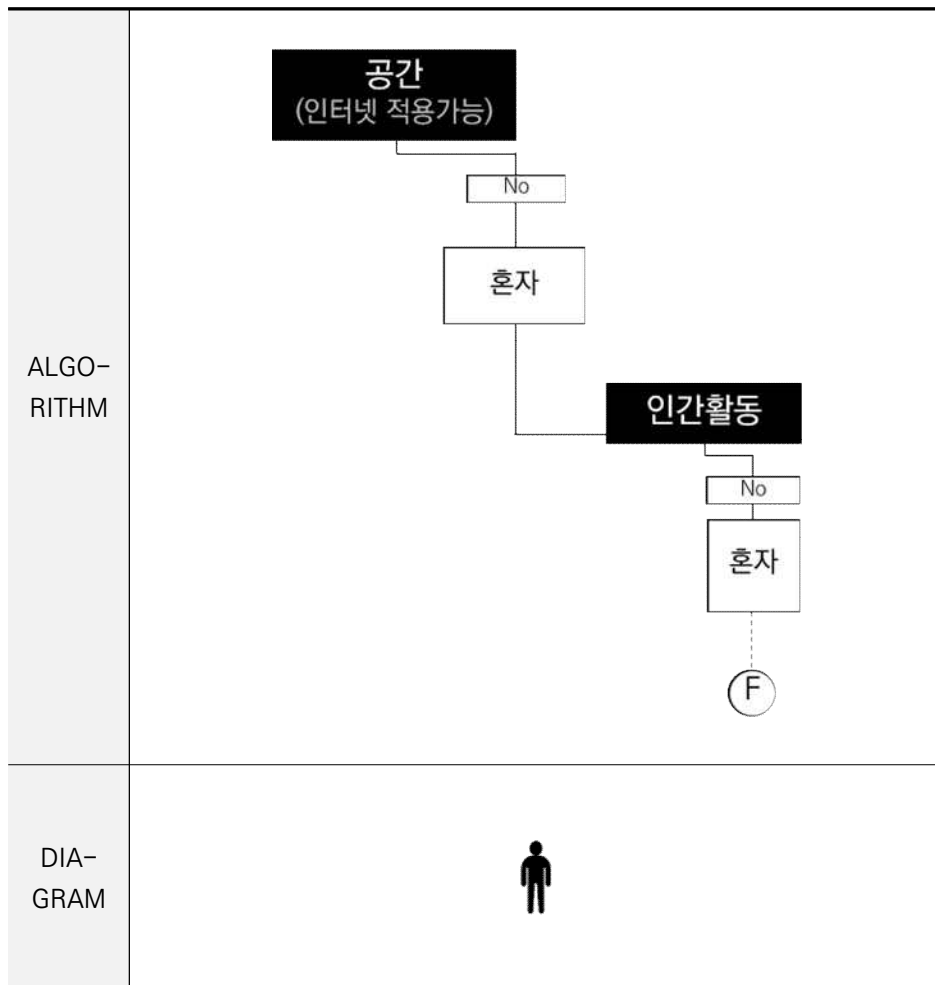
E 행태유형

- 공간 간접 공유, 활동 공유하지 않음
-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에 함께 쓰는 공간에서 현재 혼자 활동

ex. 셰어하우스 공용부에서 현재 혼자 밥을 먹는다.

ex. 사람이 없는 공원에 홀로 앉아 있다.

〈표 7-5〉 E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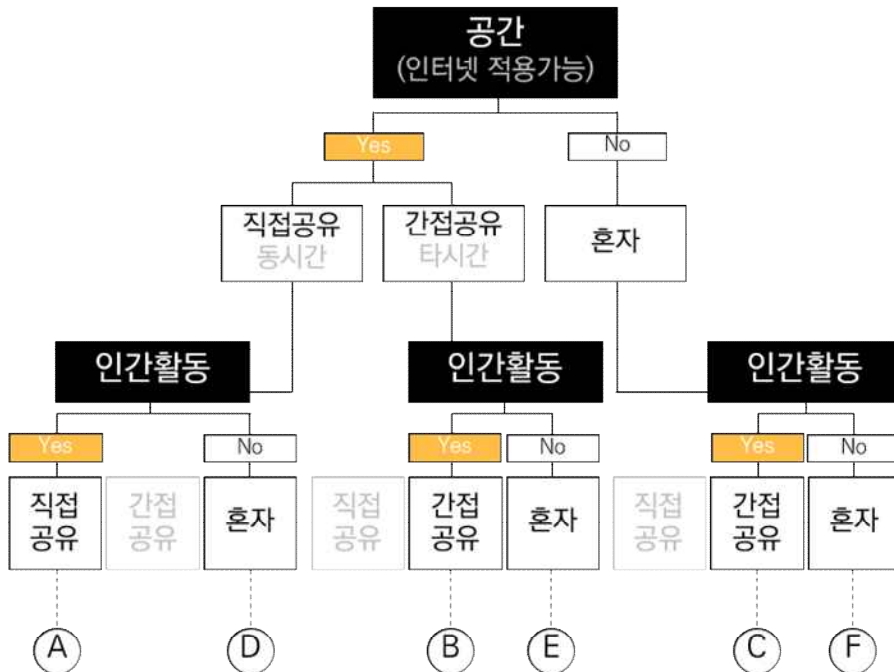
☐ Yes 공유한다 ☐ No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F 행태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과 사람 공유하지 않음 ▪ 혼자 쓰는 공간에서 혼자 활동 	

ex. 자취방에서 혼밥한다.

〈표 7-6〉 F 행태유형 :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해석

ALGORITH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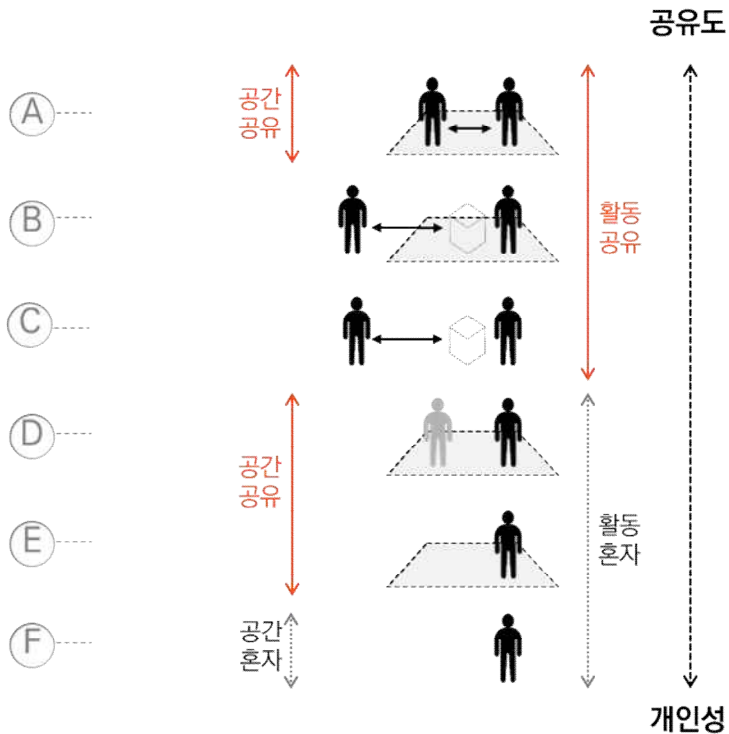
Yes 공유한다 **No** 공유하지 않는다(혼자다)

행태유형

- 개인이 특정 시점에 공간을 이용하고 타인과 활동하는 행태를 나타내는 독립적인 사건

〈표 7-7〉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알고리즘 및 특징

DIAGRAM



행태유형

- 활발한 공유관계에서 점차 개인성이 강해지는 6가지 스펙트럼
- A,D,E : (직간접적) 공간 공유 | F : 혼자 쓰는 공간
- A,B,C : (직간접적) 활동 공유 | D,E,F : 혼자 활동
- B,C : 간접적 활동 공유 유형으로, 이때 공간은 간접적 관계 맺는 타자와의 공유 여부에 대한 것임. 따라서 동시간에 공간에서 또 다른 타자와의 직접적 관계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A,D,E,F 유형과 중복하여 기록

〈표 7-8〉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다이어그램 및 특징

3.2 행태 유형 해석 및 특징

행태-공간 논리 구조화 매트릭스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섯 가지의 행태 유형을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행태유형 :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서 교류하는 행태 유형이다. 기계적으로 말하면 공간과 활동을 직접(동시간) 공유한다.
- B 행태유형 : 다른 사람과 한 공간을 다른 시간에 공유하며, 매 개체를 통해 활동도 간접 공유한다. 기계적으로 말하면 공간과 활동을 간접(타시간) 공유한다.
- C 행태유형 :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에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활동을 공유하는 행태 유형이다. 기계적으로 말하면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나, 활동을 간접적으로 공유한다.
- D 행태유형 :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 동시간에 있긴 하지만 혼자 활동하는 경우다. 기계적으로는 공간만 직접(동시간) 공유하며, 활동은 공유하지 않는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제3의 공간, 역공간의 개념과 유사하다.
- E 행태유형 :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에 함께 쓰는 공용공간에서 현재 혼자 활동하는 경우다. 기계적으로는 공간을 간접(타시간) 공유하며, 활동은 공유하지 않는다.
- F 행태유형 : 지극히 혼자 쓰는 공간에서 혼자 활동하는 행태유형이다. 즉, 공간과 활동 어느 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각 ‘행태유형’은 개인이 특정 시점에 공간을 이용하고 타인과 활동하는 행태를 나타내는 독립적인 사건이다. 행태 유형은 A, B, C, D, E, F 차례로 활발한 공유도에서 점차 개인성이 강해지는 스펙트럼으로 보고자 한다.

어느 것이 공유도가 높고 낮음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A유형과 B유형처럼 인간관계 활동의 방식이 직접적·간접적이라는 차이를 가지는 것은, 연구자는 직접적(동시간) 방식을 우위로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C유형과 D

유형처럼, 공간의 공유 여부와 인간관계(활동)의 공유 여부가 각각 다를 때, 연구자는 활동 공유 여부를 우위로 보았다. 따라서, 높은 공유도에서 점차 개인성이 강해지는 스펙트럼을 가지는 6가지의 유형을 통해 인간이 공간에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행태와 그 공간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행태유형은 공간적 범위로서 인터넷이라는 비공간적 공간(Spacelessness)에서 역시 적용된다. 이때 C유형과 F유형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E유형은, 인터넷 공간이라는 공적인 장소 특성상 공간에 나를 제외한 타자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된다. 남은 A,B,D 유형 중에서, D유형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해서 타자와 공유하는 어떠한 정보 등에 노출되지 않고, 혼자만 볼 수 있는 비밀글을 작성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연구로서 질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A유형과 B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태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A유형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타자와 교류하는 유형, B유형은 인터넷에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다양한 타시간에 타자와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공유활동을 하는 유형이다.

6가지 행태 유형을 1.1장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을 통해 구분할 수도 있다. 연구 질문은, ‘혼자’와 ‘공유’라는 행위의 대상을 ‘활동’으로 접근할 것인지, ‘공간’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활동’의 공유 여부와, ‘공간’의 공유 여부에 대해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A,B,C유형은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공유하고, D,E,F 유형은 혼자 활동한다.
- A,D,E유형은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이고, F유형은 혼자 쓰는 공간이다. 이때 B,C유형이 제외되는 이유는 B,C 유형에서 공간의 공유 여부는 간접적 관계를 맺는 타자와의 공간 공유 여부에 관한 유형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B,C유형은 한 공간에서 동시간에 또 다른 타자와의 직접적 관계가 가능하므로 A,D,E,F유형과 중복하여 기록한다. 3.3장 iv항목 참고.)

3.3 행태 유형의 다중성

행태 유형은 한 시점에 사람과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방식을 나타내는 개인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 i. 첫째, 한 개인이 물리적 공간에서 동시에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사건으로 2가지 행태 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표8- i)
- ii. 둘째, 한 공간에서는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중의 행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 iii. 셋째, 한 공간·시설 내에 다양한 용도의 구획 공간이 존재할 경우 역시, 다중의 행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 iv. 넷째, B유형과 C유형은 타자와 간접 활동을 공유하는 유형으로, 한 공간에서 동시간에 또 다른 타자와의 직접적 관계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A,D,E,F유형과 중복하여 기록한다.

한 공간에서 한 시점에 6가지 행태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의 조합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중의 행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이해해보자면, <A,D>유형 조합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 공간에서(공간을 공유하면서), 따로 활동하는 개인(D), 같이 활동하는 개인(A)이 있는 경우가 되겠다.(표8- ii) <A,D,F>유형 조합은 쉼어하우스를 예로 들어보면, 공용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A)과 혼자 활동하는 사람(D)도 있고, 방이라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는 사람(F)도 있을 수 있다.(표8- iii)

iv.항에서 기술한 특징처럼, B유형과 C유형은 타자와 간접적으로(타시간) 활동을 공유하는 유형으로, 한 사람이, 한 공간, 한 시점에서 활동할 때, 간접 활동을 포함할 경우, 현재 또 다른 타자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A,D,E,F) 중복적으로 행태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눔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해 나눔자전거 정거장을 이용하는 경우(B) 알지 못하는 익명의 타자와 자전거와 정거장을 간접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친구와 함께 대여하며(A)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도 있다.(표8-iv)

〈표 8〉는 이렇게 공간에서 나타나는 ‘행태 유형’의 다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혼자서와 공유의 인간 ‘활동’과 ‘공간’의 성격은 항상 일대일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본질을 연구배경에서 이해하였다. 본래의 공간 계획 목적과는 관계없이 행위자 주체적으로 공간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행태 조사 없이 공간을 정의하고 분류하며 그 성격을 한정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단일의 공간에 있어서 다종의 행태 유형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공간을 이용하는 복합적인 인간의 행태를 이해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행태 유형의 실제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i		
ii		
iii	ex. 셰어하우스	
	 (출처: 컴앤스테이) 슬리퍼 셰어하우스 (호암로22길 49)	
iv		

〈표 8〉 행태 유형의 다중성: 발생 ‘예시’ 도식화

제 4 장 대학동 청년 1인가구의 혼자·공유 특성 :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 적용

4.1 적용 모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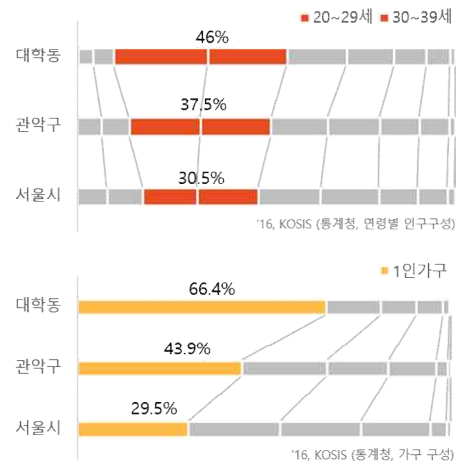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앞서 연구자가 제시한 새로운 논리적 구조를 통해, 인간이 공간에서 ‘혼자’ 또는 ‘공유’하는 특성을 다각도에서 실증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실제로 적용하는 모델로서 대상지와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적용 대상자는 앞서 1.1장 연구배경과 2.1.1장 양가적 사회양상에서 밝혔듯 혼자 또는 공유하는 생활을 가장 일상화하고 있고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양산하는 청년 1인 가구로 하고,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을 대상지로 하였다.

4.1.1 대상지 선정 및 인구특성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의 적용 대상지로서 대학동이라는 대상지를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두드러지게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학동은 전체 인구 중 20·30대 비율이 46%로 관악구 37.5%, 서울시가 30.5%의 수치에 이르는 것에 비해 매우 높다.²⁰⁾ 또한, 대학동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6.4%에 달하는데, 이 또한 관악구 43.9%, 서울시 29.5%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다.²¹⁾ 실제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학동은 서울시의 청년층 1인 가구 수 상위 10개동에 속하며, 그중 여섯 번째로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동네다. 따라서 혼자 및 공유 생활특성 조사로 적절한 인구특성을 띠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위치



〈그림 11〉 대학동 청년 1인 가구 통계

20) 연령별 인구구성 및 가구 구성('16, KOSIS, 통계청)에 의함

21) 연령별 인구구성 및 가구 구성('16, KOSIS, 통계청)에 의함

4.1.2 대상지 역사 및 인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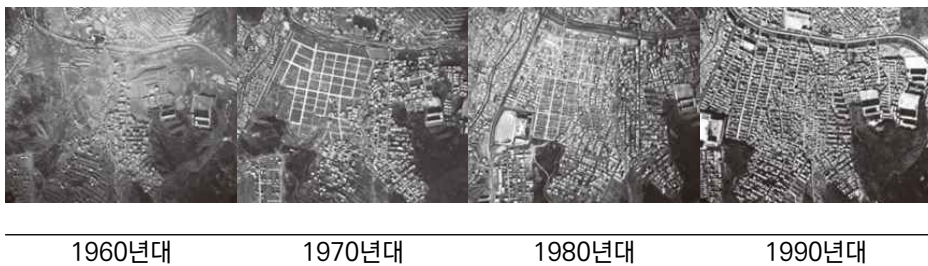
대학동은 지역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항상 청년과 함께한 동네이다. 서울대 녹두거리, 신림동 고시촌, 최근에는 신흥 고시촌, 1인 가구 밀집 지역, 청년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수식어가 쌓여온 대학동은 언제나 청년 인구와 관련지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 서울대 녹두거리: 1975년 서울대학교 이전 후, 관악캠퍼스 인근 대학동의 상업·주거지역이 변화하고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작동하며 ‘녹두거리’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 신림동 고시촌: ‘돼지막’으로 불린 1평의 무허가 하숙집에서 출발하여 고시원, 고시학원, 고시식당, 서점 등의 파생시설과 함께 확장하였다. 일대에서 거주하던 서울대 고시생들이 다수 합격하면서 고시 동네로 입소문이 나고, ‘벼슬산’이라고 불리던 관악산에 침거하던 고시생들이 내려와 터잡으며 1980년대 고시촌이 형성되었다.²²⁾
- 신흥 고시촌, 1인 가구 밀집 지역: 감정평가사, 노무사, 경찰간부, 7·9급 공무원 등 신흥 고시생들이 유입되었다. 또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온 젊은 층(직장인, 신혼부부 등)과 1인 가구가 증가하였다.
- 스타트업, 청년문화예술공간: 청년 창업플랫폼, 서울대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zip’이 조성되었고, 서울대와 연계한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 계획이 대학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대학로에서 활동하던 연극배우들이 직접 만든 극단

22) 서울역사박물관. (2015). 신림동 청춘: 고시촌의 일상(Sillim-dong Youths, Toil today, Success tomorrow),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 신림동 청춘 전시도록, 1-108.

‘광태 소극장’이 위치하며, ‘고시촌 영화제’가 개최된 바 있다.²³⁾

대학동의 전반적 역사와 현황을 통해 대학동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직업도 크게 대학(원)생, 고시생, 그리고 현재는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청년세대’의 특성을 분석하기 적절하다는 점에서 대학동을 적용 대상지로 선정한다.



〈그림 12〉 대학동 지역의 변천사²⁴⁾

23) 유원모, 2016.10.28., 동아닷컴, “신림동 고시촌에 ‘레드카펫’ 깔린다”
(<http://news.donga.com/3/all/20161028/81046311/1>)

24) 서울역사박물관. (2015). 신림동 청춘: 고시촌의 일상(Sillim-dong Youths, Toil today, Success tomorrow),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 신림동 청춘 전시도록, 1-108.

4.1.3 대상지 공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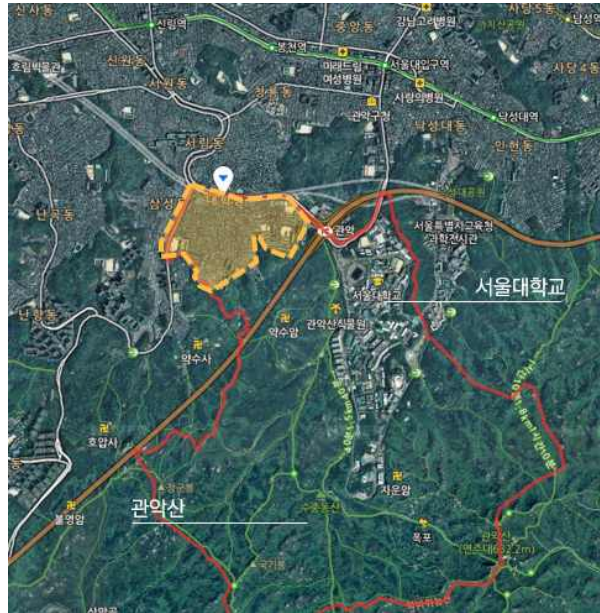
1) 지역환경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은 동쪽에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서쪽의 주거지역까지 경계가 이른다. 대학동은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설정되어 있다. 대학동의 총 면적은 약 8.30㎢, 주거지역의 면적은 약 0.7㎢이다. 인구수는 23,509명²⁵⁾이며, 1960년대 중반 철거 이주민이 몰리면서 주거지역이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지금의 형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확립되었다.²⁶⁾ 신림9동에서 2008년 9월 1일 대학동으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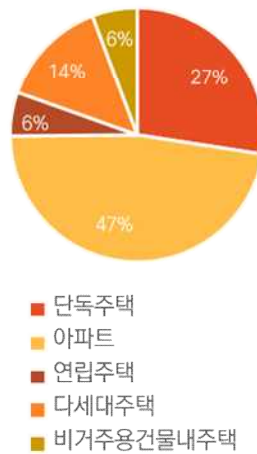
대학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환경 분석은 토지이용계획 상의 주거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그림 15>와 같다. 주거 시설은 남쪽의 관악산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상업시설은 그 아래에 일부 가로를 중심으로 밀집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연립주택 순으로 많이 분포하는데, 이때 <그림 15-2>에서 파란색으로 고시원을 추가 표시하였고, 진한 파랑으로 표시한 공유주택 6곳이 존재하고 있다.

25) 인구수 2017.12.31. 기준 (위키백과 제공)

26) 서울역사박물관. (2015). 신림동 청춘: 고시촌의 일상(Sillim-dong Youths, Toil today, Success tomorrow),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 신림동 청춘 전시도록, 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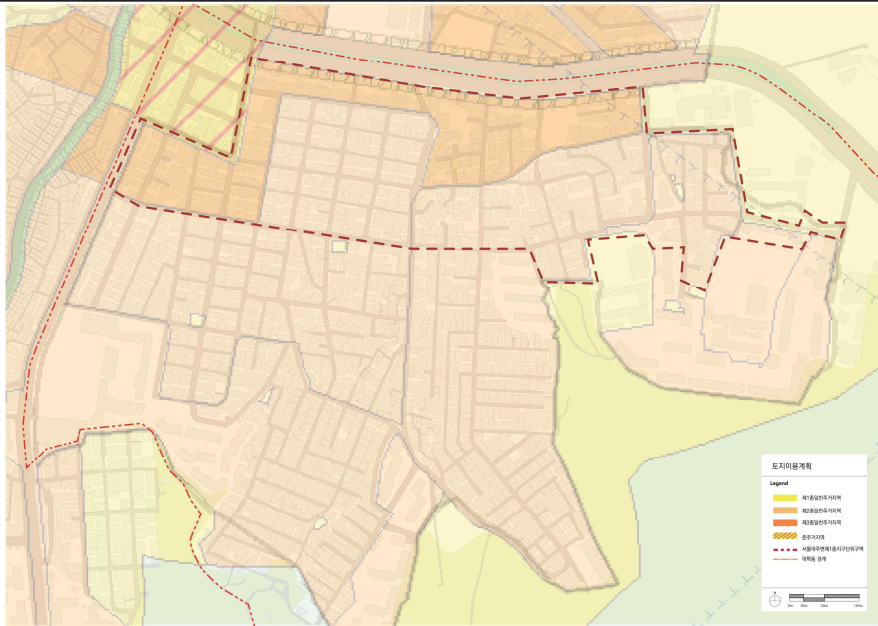
〈그림 13〉 관악구 대학동 위성지도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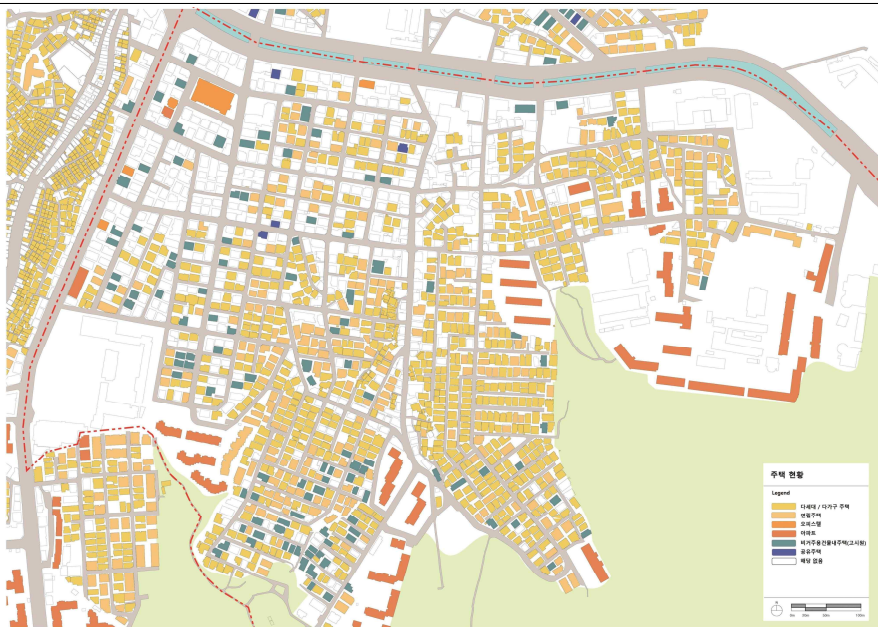
〈그림 14〉 대학동 주택유형²⁸⁾

27) 위성지도(Naver, 제공)에 주거지역 일대 추가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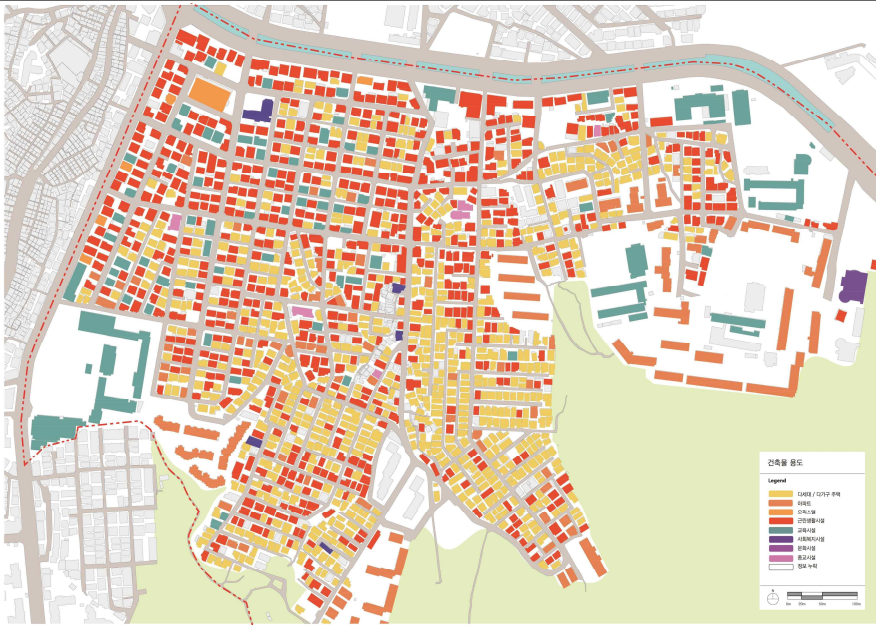
28) 주택총조사("15, KOSIS, 통계청)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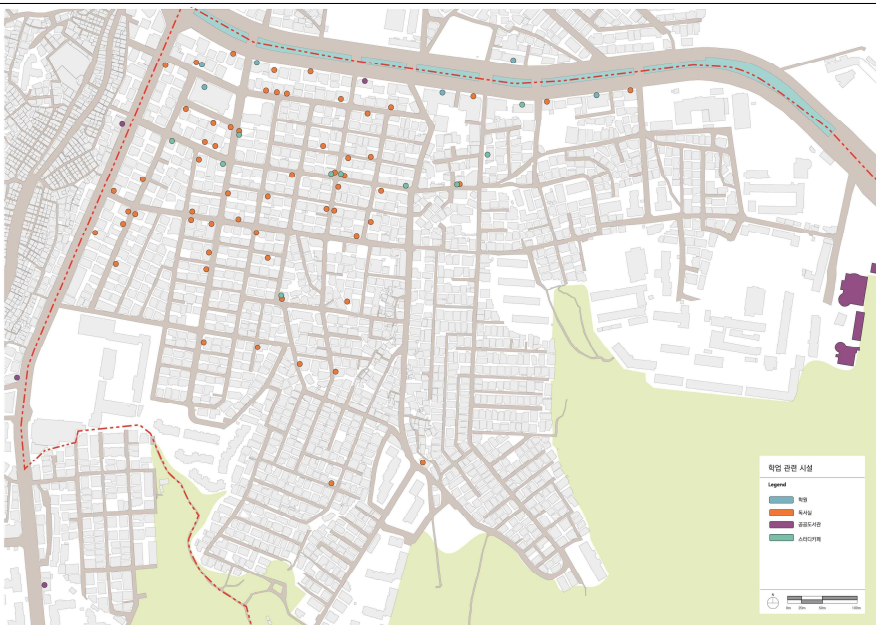
〈그림 15-1〉 대학동 토지 이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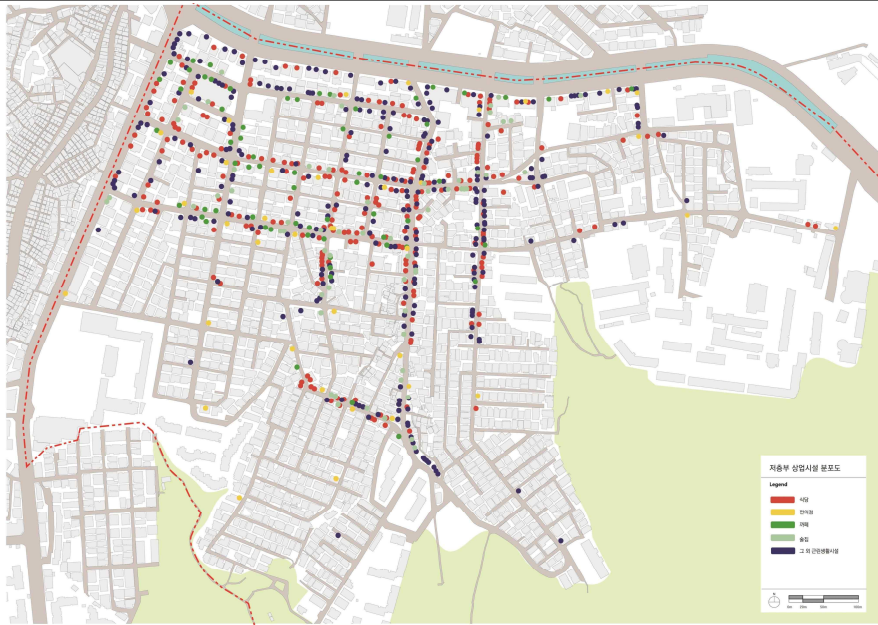
〈그림 15-2〉 대학동 주거용 시설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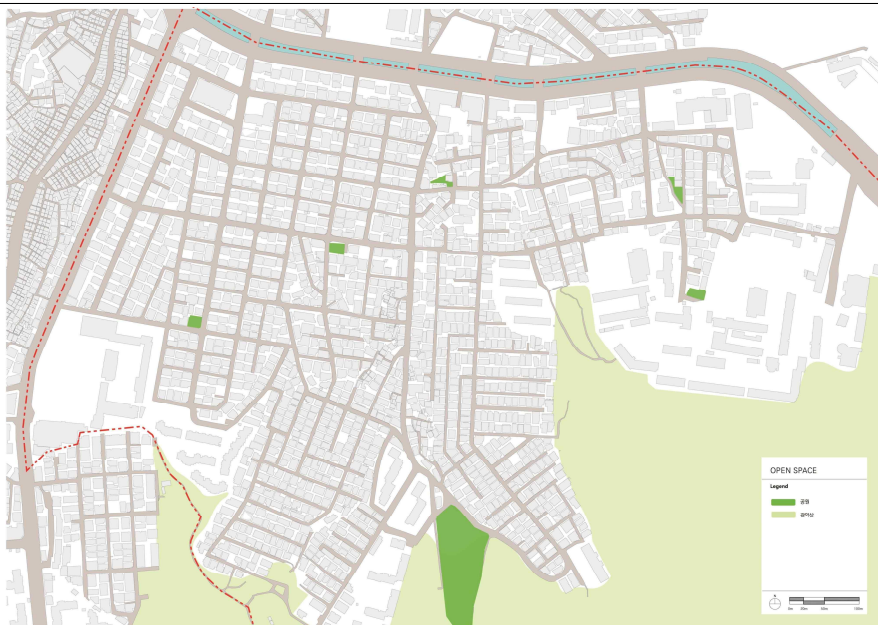
〈그림 15-3〉 대학동 건축물 주용도 분포 현황



〈그림 15-4〉 대학동 고시·학업 관련 시설



〈그림 15-5〉 대학동 저층부 상업시설 분포



〈그림 15-6〉 대학동 오픈스페이스

2) 대학동 공유 시설 정보

혼자 사는 청년들이 근린환경 내에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행태와 공간 양상을 밝히기 앞서, 대학동 지역에서 공유활동을 지원하는 기존 공간·시설 현황을 조사해보았다. 조사하여 정리한 공간·시설 목록은 <표 14>와 같으며, 그 분포를 지도에 표기한 것은 <그림 16>이다. 자료는 서울시 공유허브²⁹⁾ 제공 정보와 쉼어하우스 정보 포털인 컴앤스테이³⁰⁾ 제공 정보를 참고하고, 전수조사 및 기타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리되었다.

그 외에도, 대학동에는 공유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지도에 표기할 수 없는 공유 서비스들도 있다. 국내 최초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elecle(일레클)’과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지원하는 ‘Swing(스윙)’이 그 예이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공유 서비스는 GPS를 부착한 모빌리티를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대여·반납·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나눔카나 서울시 나눔자전거인 ‘따릉이’ 서비스와 그 방식이 유사하나, 지정된 특정 장소가 아닌 이용자가 사용을 마친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종료하면(반납), 다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거나 서비스 업체가 나중에 수거해간다는 차이가 있다(일정 반납구역 내에서 자유로운 반납이 가능하다). 어디서나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비고정형(dockless) 공유 서비스³¹⁾인 것이다. 두 서비스는 모두 2019년 올해 런칭하여 서울시에서도 일부 소수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대학동과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현대 사회에는 대학동이라는 지역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유활동들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유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공간·시설이 대학동 청년들의 일과에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언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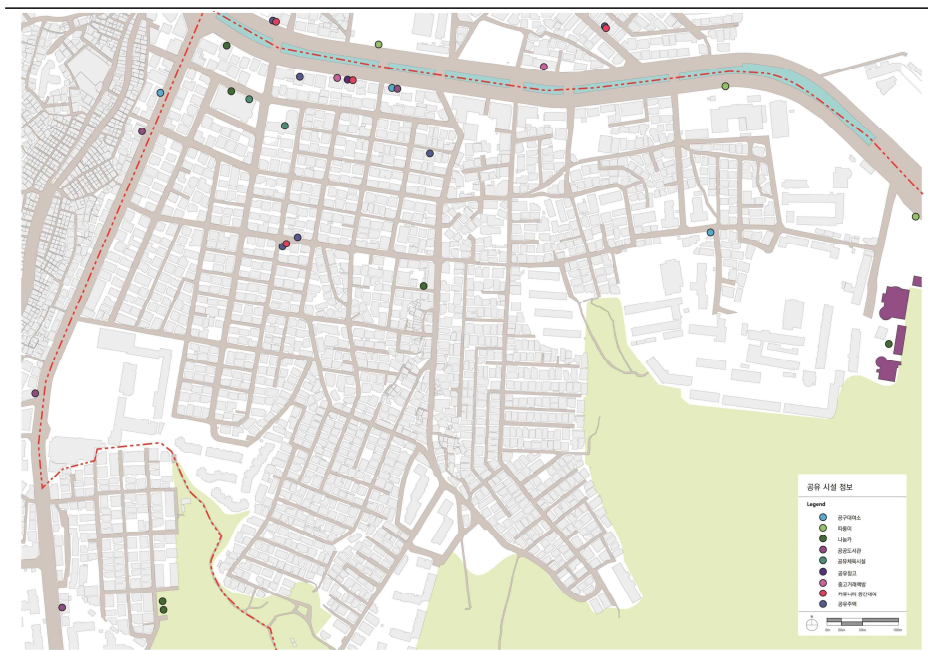
29) 서울시 공유허브 포털, www.sharehub.kr

30) 쉼어하우스 포털, 컴앤스테이, <https://www.thecomensta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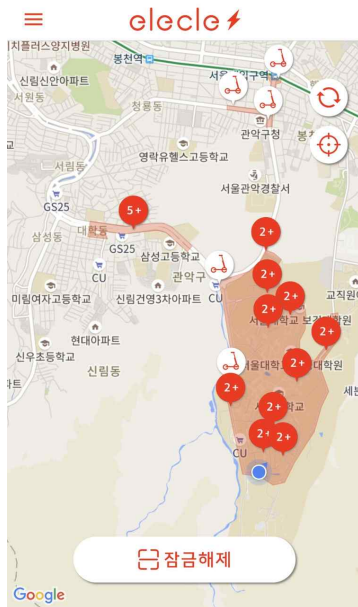
31)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elecle(일레클), <https://elecle.bike/faq>

공유대상	시설 구분		시설명
공간	커뮤니티 공간대여		녹두zip
			쉐어어스 청광
			스터디룸
	공유체육시설		관악청소년회관
			선우공원 테니스장
	공유주택		쉐어어스 청광
			쉐어어스 신림(예정)
			잠자리 쉼어하우스 서울대입구 2호점
			슬리퍼 쉼어하우스 대학동점
			로랑쉐어하우스 서울대점
			쉐어하우스 Author's House 2호점
모빌리티	따릉이		2143. 서울산업정보학교
			2139. 서울신성초등학교
			2141.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나눔카	그린카	녹두거리 치안센터 옆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
		쏘카	미림여고입구교차로
			관악 청소년회관 앞
			녹두거리 치안센터 옆
			관악문화관도서관
			신림빌라 옆
물건	공구대여소		LC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학동주민센터 생활공구 대여소
			열린공인중개사사무소
	중고거래 책방		책터나눔
			헌책방
	공유창고		녹두 zip 공유창고
지식	공공도서관		꿈나무영유아도서관
			관악문화관도서관
			대학동 녹두 작은도서관
			삼성작은도서관
			삼성동 셋별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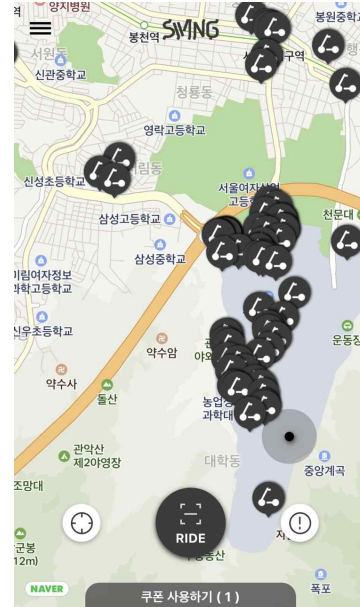
〈표 14〉 대학동 공유 시설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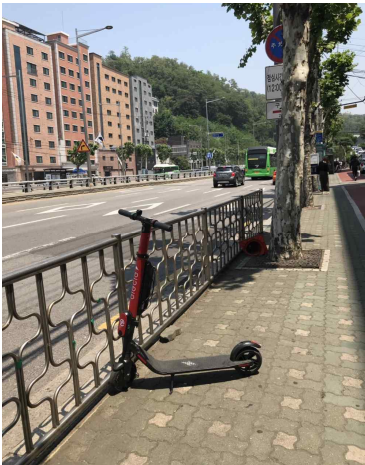
〈그림 16〉 대학동 공유 시설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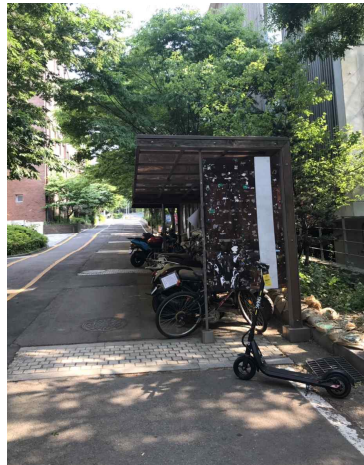
〈그림 17-1〉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일레클’ 어플³²⁾



〈그림 17-2〉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스윙’ 어플³³⁾



〈그림 17-3〉 실제 대학동(신림로)에 주차되어 있던 ‘일레클’ 공유전동킥보드



〈그림 17-4〉 실제 대학동(서울대학교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스윙’ 공유전동킥보드

32) 해당 어플, 2019.06.04. 14시경 기준, 연구자 캡처

33) 해당 어플, 2019.06.04. 14시경 기준, 연구자 캡처

4.2 조사 및 분석방법

4.2.1 근린활동일지 조사

1) 조사 절차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근린활동일지’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설문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사람이 실제 하루 동안 근린 내 어떤 공간에서 언제 누구와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는 그 활동 주체의 응답을 통하지 않고서는 조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한 구체적이고 다수의 표본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활동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설문 양식을 구성하였다.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근린활동일지 설문조사에 앞서 먼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인간대상연구를 위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심의 의뢰를 위해 사전에 각종 설문조사 관련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IRB 심의 승인 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는데, 그 과정은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 ‘Snulife(스누라이프)’와, 대학동 커뮤니티 어플 ‘9동여지도’, 그리고 연구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모집한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목적 및 윤리 서약을 설명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 양식에 맞추어 지난 일주일 가운데 평일 하루의 활동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질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몇 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근린활동일지 조사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조사 절차	내용
i.	연구계획 및 IRB심의 의뢰	1. 설문조사 양식 작성 2. 설문결과 정리 양식 작성 - 코드북 - 데이터 코딩 시트 3.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작성 4. 연구참여자 동의서 작성
ii.	IRB심의 승인 후 연구참여자 모집	1. 대학동 커뮤니티 어플 '9동여지도', 서울대학교 'Snulife'의 모임·모집·구인 게시판에 모집내용 공지 2. 연구자 사회적 연락망을 통한 모집
iii.	데이터 수집	1. 모집한 연구참여자에게 설문 양식에 맞춰 지난 1주일 가운데 평일 하루의 활동을 기록하도록 함
iv.	데이터 프로세싱	1. 도출 항목 설정 2. 응답 데이터 코딩 3. 노드별 행태유형 적용 4. 노드별 위치좌표 기록 및 맵핑
v.	분석결과 도출	1. 도출 항목 결과 분석

〈표 9〉 근린활동일지조사 절차

2) 조사 범위

근린활동일지 설문조사 대상자는 대학동을 주요 생활공간으로 하며 대학동 및 서림동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30명이다. 서림동 거주자를 대상자에 포함한 이유는, 서림동은 대학동과 신림로를 경계로 바로 북쪽으로 인접한 행정동으로, 대학동에 비해 식당, 오락·유흥시설 등의 상업시설과 학원 등을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대학동 지역에서 다수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림동 거주민 중에서도 대학동에서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는 청년 1인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IRB 승인 후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고, 참여자가 일과를 기록하는 대상 기간은, 설문일 기준 지난 1주일 중 평일 하루로 하였다.

근린활동일지에 기록하는 공간적 범위는 제한 없이 참여자가 하루 동안 활동한 공간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인 근린환경 내에서 청년 1인 가구가 혼자 또 공유하며 살아가는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근린환경으로 제한한다. 이때 연구자가 설정한 근린환경의 범위는 대학동과, 대학동 주거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태양 어린이 공원에서 평균 도보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반경 600m로 설정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자 (연구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동을 주요 생활공간으로 하는 자 ▪ 대학동, 서림동 거주자 ▪ 20대, 30대 청년 ▪ 1인 가구 ▪ 30명 	
조사 기간	설문조사 기간	▪ 2019.05.13 ~ 2019.05.24
	근린활동일지 기록 대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1일 ▪ 설문일 기준 지난 1주일 가운데 평일 하루의 활동을 기록
조사 공간 범위	기록 공간 범위	▪ 제한 없음(활동한 공간 모두)
	분석 공간 범위 (근린환경 범위)	▪ 대학동 + 대학동 주거지역 중심에서 반경 600m

〈표 10〉 설문지 구성 및 수집 항목

3) 조사 내용

근린활동일지 조사를 위한 설문지³⁴⁾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Part 1.)는 ‘일반설문지’로 연구참여자의 나이, 성별, 직업, 거주유형의 일반적 특징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Part 2-1.)는 ‘근린활동일지’로 참여자가 평일 하루에 이용한 모든 공간·시설과 활동을 양식에 맞춰서 차례로 적도록 한다. 이 차례는 노드가 되어 하루에 수많은 노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각 노드에서 얻게 되는 정보와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공간·시설 이름(상호명), 종류, 그리고 시설 내에 구획된 공간에서의 활동일 경우 모두 분리해서 기록하도록 하여 이용하는 공간 정보를 얻는다. 이때 이동 간에 이용한 길도 공간으로 보고 한 노드로 기록하도록 한다. 상호명은 위치 좌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단일 위치정보로 기록될 수 없는 길과,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거주지인 집은 상호명을 적지 않아도 된다.
- 각 노드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간’의 공유 여부와 동시에 ‘활동’의 공유 여부가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함께 활동한 사람 수를 기입하도록 한다.
- ‘활동’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공간’만 공유하는 경우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드별 해당 공간에 있던 사람 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 연구참여자가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혼자 또는 공유)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식사, 음주, 공부, 여가(스포츠·운동 및 오락·유흥으로 한정) 활동을 했을 경우 체크 표시하도록 하고, 그 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기술란을 구성하였다.
- 또한, 참여자가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의 축과 노드에서의 지속시간에 대한 정보, 즉 시각과 시간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드별 시작시간과 떠난 시간을 모두 기입하도록 하였다.

34) 설문지 양식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세 번째(Part 2-2.)도 역시 ‘근린활동일지’ 인데 이는 공간적 범위가 인터넷으로 ‘인터넷 공간 활동일지’로 부제를 붙였다. 대학동 이웃과 인터넷 공간을 공유하는 사례를, 인터넷에 접속한 시각에 해당하는 실제 공간에서의 노드 번호(Part 2-1. 참고)와 함께 기록한다. 이는 모바일 기기 사용 등으로 인터넷 공간이라는 비공간적 공간에서 근린이웃과의 직·간접적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빈도와 실제 공간에서의 행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때 인터넷 공간에서 대학동 근린 이웃간의 공유활동을 수집하기 위한 대표적인 매체로 선정한 것이 ‘9동여지도’라는 대학동(구 신림9동) 커뮤니티 어플과 배달 어플이다. 9동여지도는 맛집, 중고 장터, 모임모집, 방매물, 구인구직, 시험방 등의 동네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다방에서는 이용자들이 각종 일상 정보를 주고받는 장이 되며, 해당 어플은 댓글 및 쪽지 기능을 포함하여 모임모집 등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등을 위해서 소통이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배달 어플은 대학동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소지 주변 배달가능 상점으로부터 음식 등을 주문할 수 있다. 다음의 2가지 매체 이외에도 대학동 근린이웃과 소통하는 기타 사례를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출처: apple app store)



(출처: monthly.appstory.co.kr)

〈그림 18〉 대학동 커뮤니티 어플 ‘9동여지도’ 및 배달어플

설문지 구성		수집 항목	
Part 1.	일반설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 성별 ▪ 직업 ▪ 거주유형 및 형태 	
Part 2-1.	근린활동일지 (실제공간)	공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이용한 모든 공간·시설 이름 및 종류 ▪ 시설 내 구획된 공간일 경우 모두 분리해서 기록
		공간·활동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드별 함께 활동한 사람 수 ▪ 노드별 해당 공간에 있던 사람 수
		활동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자유 기술 (밥,술,학업, 여가 활동은 체크 기록)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드별 시작 시간, 떠난 시간
Part 2-2.	근린활동일지 (인터넷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공간에서 노드와, 9동여지도 어플 활동 내역 ▪ 실제 공간에서 노드와, 배달 어플 사용 내역 ▪ 실제 공간에서 노드와, 대학동 근린이웃과 소통하는 기타 사례 기록 	

〈표 11〉 설문지 구성 및 수집 항목

4) 연구참여자 소개

대학동을 주요 생활공간으로 하며 대학동과 서림동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인 연구참여자 30명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연령대는 21세에서 37세까지 이르렀으나 주로 20대가 많았고, 여성이 11명, 남성이 19명 참여했다. 직업은 대학(원)생이 9명, 각종 자격증 및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 13명, 고시 공부를 제외하고 진로준비 상태에 있는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이 5명, 직장인이 3명이었다.

거주유형은 원룸, 투룸, 하숙, 셰어하우스, 고시원으로 다양했는데, 이 가운데 거주지 내 다른 사람과의 공용공간·시설을 포함하는 참여자는 14명, 오히려 모든 공간을 혼자 사용하는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16명이었다.

그들이 하루에 근린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비율을 내봤더니, 대부분이 하루 24시간을 근린환경 내에서 보내는 모집단이었다. 평균적으로는 근린 내에서 보내는 생활시간 비율이 88.73%이었다. 이때 근린의 범위는 앞서 2)조사 범위장에서 한정된 분석 공간 범위(근린환경 범위)로 하며<표 10>, 근린활동일지에 기록한 노드별 시간에 의하여 근린 안과, 밖의 노드를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만약 한 노드에 기록된 활동이 동적 활동으로 근린 안팎을 동시에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공간일 경우(길, 교통수단이 대표적인 사례), 근린 내 공간을 포함하면 모두 근린으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에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 노드의 지속시간은 최소 1분에서 최대 30분에 이른다. 따라서 100% 근린 범위 내에서 활동했던 참여자를 제외한 참여자의 근린 내 생활시간 비율 수치는 실제로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연령 (세)	성별	직업	거주유형	거주지 내 공용공간·시설	근린 내 생활시간 비율(%)
1	32	남	직장인	원룸	X	58.33
2	24	여	고시생	하숙	부엌,세탁기,화장실	100
3	23	여	고시생	원룸	X	100
4	28	여	고시생	하숙	부엌,세탁기,화장실	100
5	27	남	취준생	투룸	X	100
6	29	남	직장인	쉐어하우스	세탁기	100
7	30	남	대학(원)생	원룸	세탁기	100
8	25	남	대학(원)생	원룸	X	100
9	23	여	고시생	원룸	X	75
10	26	여	대학(원)생	원룸	X	100
11	28	여	고시생	원룸	세탁기	100
12	24	여	대학(원)생	원룸	세탁기	100
16	26	여	취준생	원룸	X	100
14	27	남	고시생	원룸	X	100
15	37	남	고시생	원룸	X	100
16	27	남	고시생	원룸	X	99.30
17	24	남	대학(원)생	원룸	X	100
18	28	남	고시생	고시원	세탁기,화장실	100
19	23	여	대학(원)생	원룸	X	100
20	26	남	고시생	원룸	세탁기	97.22
21	30	남	고시생	원룸	X	100
22	32	남	대학(원)생	원룸	세탁기	100
23	27	남	고시생	원룸	X	100
24	21	여	대학(원)생	쉐어하우스	부엌,세탁기,화장실	100
25	27	여	취준생	쉐어하우스	부엌,세탁기,화장실	81.25
26	32	남	직장인	원룸	세탁기	55.55
27	29	남	취준생	원룸	세탁기,정수기	91.66
28	28	남	고시생	원룸	세탁기,조리시설	100
29	26	남	취준생	원룸	X	100
30	24	남	대학(원)생	원룸	X	80.55
						평균 88.73

〈표 12〉 연구참여자 소개 및 근린 생활시간 비율

4.2.2 데이터 프로세싱

근린활동일지를 통해 수집된 청년들의 근린활동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우선 질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출할 항목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입력(코딩)하며, 노드별로 '행태 유형'을 적용하고 위치 좌표를 기록한 후, 앞서 설정한 도출 항목에 맞춰 데이터를 처리하여 맵핑, 차트, 표, 다이어그램의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1) 도출 항목 설정

구분	항목 내용
인간 활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태유형별 발생 빈도-지속시간 (일일, 시간대별) ▪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공간 이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태유형별 이용된 공간·시설 (순위, 분포) ▪ 공간·시설별 행태 유형 구성비
비공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공간-인터넷공간 행태유형 상관관계

〈표 13〉 행태 유형 적용을 통해 도출할 항목

2) 응답 데이터 코딩

근린활동일지를 통해 수집한 응답 데이터의 입력은 연구계획 시 작성한 코드북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트에 코딩하는 과정이다. 코딩 예시는 다음의 <그림 19>와 같다.

ID	NODE	WHERE_CO	WHERE_X	WHERE_Y	WHERE_Z	WHERE_S	WHEN	WITH_L	WITH_U	WH	WHU	WHF	WHAT	BEHA	WHEN_L	WHEN_U	WHEN_Z	WHEN_S	DURAT	NEIGH	WHEN_L
2	3	194227.76	441028.17	직장			10	3	1					A	6	10	6	40	30	1	AM
2	7	194227.76	441028.17	직장			10	3	1					A	17	20	17	30	10		PM
2	11	194397.2	440999.94	식당			1	0	1	1				D	19	40	20	0	20		PM
2	13	194185.4	440812.1	카페			4	2	1				대화	A	20	10	21	0	50		EVE
3	5	194134.3	440726.4	육서실	열람실		3	0	1					D	9	20	9	25	5		AM
3	7	194132.6	440841.3	식당			1	0	1	1				D	9	30	9	50	20		AM
3	9	194134.3	440726.4	육서실	열람실		3	0	1			1		D	9	55	11	20	85		AM
3	10	194134.3	440726.4	육서실	자취 휴게실		3	0	1			1		D	11	20	13	5	105		AM
3	11	194134.3	440726.4	육서실	열람실		3	0	1			1		D	13	5	14	40	95		PM
3	13	194159.8	440873.2	육서실	자취 스타디움		3	3	1			1	스타디움(포도고사)	A	14	50	16	30	100		PM
3	15	194134.3	440726.4	육서실	열람실		3	0	1	1				D	16	40	16	43	3		PM
3	17	194109.5	440799.2	식당			1	0	1	1				D	16	45	17	5	20		PM
3	19	194134.3	440726.4	육서실	열람실		3	0	1			1		D	17	10	18	20	70		PM
3	23	194044.8	440974.5	도서관			3	0	1					D	19	25	19	35	10		PM
3	25	194198.6	440984.4	도서관			3	0	1					D	19	40	19	45	5		PM
3	27	194134.3	440726.4	육서실	열람실		3	0	1			1		D	19	50	22	20	150		PM
4	5	195695.1	439679.9	도서관	로비		3	6	1			1	스타디움(출력)	A	8	58	9	1	3		AM
4	6	195695.1	439679.9	도서관	열람실		3	0	1			1		D	9	1	12	0	179		AM
4	8	195555.3	439702.9	식당			1	1	1	1				A	12	3	12	35	32		PM
4	12	194473.4	441081.8	카페			4	0	1				구매(카페)	D	12	51	12	58	7		PM
4	14	194429.7	441093.7	직장	강의실		10	0	1			1		D	13	0	17	40	280		PM
4	16	194461.9	441096.9	식당			1	0	1	1				D	17	42	18	15	33		PM
4	20	195695.1	439679.9	도서관	열람실		3	0	1			1		D	18	38	21	0	142		PM
4	21	195695.1	439679.9	도서관	스타디움		3	4	1			1		A	21	0	22	0	60		EVE
5	3	194370.3	440739.3	육서실	로비(1층)		3	2	1			1	스타디움(출력)	A	8	0	8	1	1		AM
5	4	194370.3	440739.3	육서실	열람실(5층)		3	0	1			1		D	8	1	13	0	299		AM
5	5	194370.3	440739.3	육서실	스타디움(지하)		3	5	1			1	스타디움(영어단어)	A	13	0	13	15	15		PM
5	7	194132.6	440841.3	식당			1	0	1					D	13	20	13	45	25		PM
5	9	194368.11	440743.77	카페			4	0	1				구매(카페)	D	13	50	14	0	10		PM
5	10	194370.3	440739.3	육서실	열람실(5층)		3	0	1			1		D	14	0	18	0	240		PM
5	12	194132.6	440841.3	식당			1	0	1	1				D	18	5	18	30	25		PM
5	14	194370.3	440739.3	육서실	로비(1층)		3	2	1				대화	A	18	35	19	0	25		PM
5	15	194370.3	440739.3	육서실	열람실(5층)		3	0	1			1		D	19	0	24	0	300		PM
6	3	194304.8	440814.4	스타디움			3	3	1			1	스타디움(분개물리)	A	8	45	12	0	195		AM
6	7	194138.1	440876.8	육서실			3	2	1			1	스타디움(영어단어)	A	12	50	16	0	190		PM
6	13	194378.7	440911.35	식당			1	0	1	1				D	16	0	18	35	35		PM
6	15	194186.59	440916.67	일(출근)			6	1	1				출근(출근)	A	18	40	18	45	5		PM
6	17	194396.3	441216.6	육서실			3	3	1			1	스타디움(자습)	A	19	0	22	30	210		PM
7	3	194694.8	441031.4	직장			10	4	1					A	9	20	12	0	160		AM
7	5	194616.45	440970.94	식당			1	4	1	1				A	12	10	12	40	30		PM
7	7	194625.8	441037.5	카페			4	4	1				구매(카페)	A	12	50	13	0	10		PM
7	9	194654.8	441031.4	직장			10	4	1					A	13	5	15	0	115		PM
7	11	194624.38	440953.44	직장			10	0	1					D	15	5	18	0	175		PM
7	13	194211.53	440962.62	카페			4	0	1				구매(카페)	D	18	5	18	15	10		PM
7	15	194654.8	441031.4	사무실			10	4	1					A	18	20	18	30	10		PM

<그림 19> 근린활동일지 응답 데이터 코딩 예시

3) 노드별 행태유형 적용

근린활동일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노드별로 행태유형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4.2.1장의 3)조사내용 장과 <표 11>에서 근린활동일지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시하였다.

각 노드에서 단일, 혹은 다중의 행태 유형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6가지의 행태유형은 이 4가지 기준 중 몇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표 14-1, 표 14-2 참고)

- ① 함께 활동한 사람 수: 다른 사람과의 ‘공간’의 공유 여부와 동시에 ‘활동’의 공유 여부가 일어났는지 파악한다. 함께 활동한 사람이 있었으면 A유형이 된다.
- ② 공간에 있던 사람 수: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인지 파악한다. 공간에 있던 사람이 있었으나, 동시에 ①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D유형이다.
- ③ 공간·시설 특성: E유형과 F유형은 ①,②의 기준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 노드의 공간·시설이 타시간에는(간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유형인 공용공간이나 공공공간인 경우에 E유형, 기본적으로 혼자 쓰는 공간인 사적공간, 개인공간일 경우 F유형이다.
- ④ 활동 특성: 이는 간접 인간활동 공유가 발생하는 B유형, C유형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3.3장의 행태유형 특징 중 iv항목을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타자와 타시간에 간접 활동을 맺는 유형은, 동시에 한 공간에서 또 다른 타자와 동시간에 직접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능하기에, A, D, E, F유형과 중복하여 적용한다. 이때 B유형과 C유형의 구분은 ③ 기준인 공간·시설 특성이 간접 활동을 위한 매개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된 지정장소일 경우 B유형, 그렇지 않고 장소는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C유형이 된다.

행태 유형	노드별 행태유형 적용 기준			
	① 함께 활동한 사람 수	② 공간에 있던 사람 수	③ 공간·시설 특성	④ 활동 특성
A	있음	-	-	-
B	-	-	고정된 지정장소	간접 활동 공유 (매개 공유)
C	-	-	-	간접 활동 공유 (매개 공유)
D	없음	있음	-	-
E	-	없음	공용공간, 공공공간	-
F	-	없음	사적공간, 개인공간	-
기준 해석	① : ‘활동’ 및 ‘공간’ 공유 여부 ② : ‘공간’ 공유 여부 ③ : ‘공간’ 간접 공유 여부 ④ : ‘활동’ 간접 공유 여부			

: 행태 유형별 고려해야 하는 적용 기준

〈표 14-1〉 노드별 행태유형 적용 기준

행태 유형	적용 해석
A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활동한 경우
B	타자와 간접 공유 활동을 하는데, 그 간접 활동의 매개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정되어, 장소도 간접 공유하는 경우
C	타자와 간접 공유 활동을 하는데, 그 간접 활동의 매개체를 지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
D	함께 활동한 사람은 없는데, 공간에 사람은 있던 경우
E	공간에 아무도 없었는데, 본래 타시간에 함께 쓰는 공간인 경우
F	공간에 아무도 없었는데, 본래 혼자 쓰는 공간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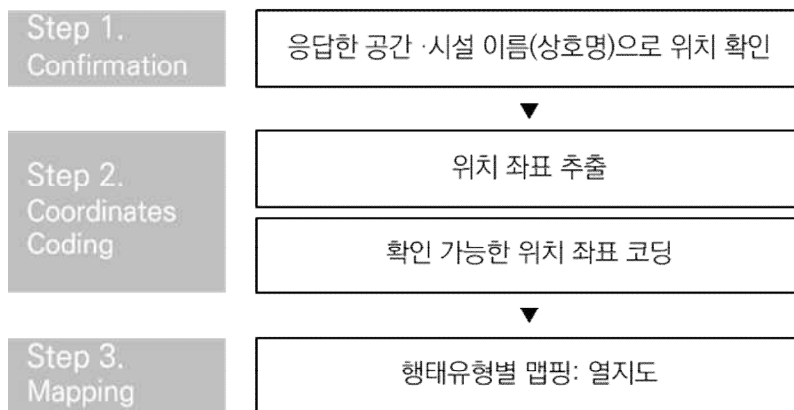
〈표 14-2〉 행태 유형 적용 기준 해석

4) 노드별 위치 좌표 기록 및 맵핑

근린활동일지의 노드별 위치 정보를 알게 되면, 청년이 공간에서 혼자 또 함께 살아가는 '행태 유형'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드별 위치 정보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가운데, 공간·시설 이름(상호명)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확실한 위치 정보 확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도 검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9동여지도 어플에서 제공하는 독서실, 고시식당 위치 정보로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는 현장 조사방법을 활용했다. 그 후, 확인한 위치 정보에 대해서 QGIS 프로그램에서 좌표를 추출하고, 데이터 처리 시트에 코딩한다. 앞서 코딩한 모든 정보에 위치 좌표를 추가하면, 공간적 분포를 열지도로 맵핑 가능하다.

이때, 위치 좌표 기록에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연구참여자의 응답에서 상호명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확인이 불가능했던 상호명은 제외된다.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거주지인 집과, 노드별로 단일 포인트로 기록될 수 없는 동적 활동을 포함되는 길 및 교통수단도 제외된다.



〈그림 20〉 노드별 위치 좌표 기록 및 맵핑 과정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의 혼자·공유 특성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 적용

4.3 인간 활동 특성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따로 또 같이’, ‘혼자’ 또는 ‘공유’하는 양가적 생활문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청년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연 실제로 혼자 사는 청년들은 어떻게, 어떤 비율로 따로 또 같이 살아갈까? 그리고 어떤 활동을 혼자 혹은 함께 주로 할까? 그 과정에서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을까?

3장에서 제시한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대학동이라는 청년이 밀집한 동네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러한 어렵פות한 궁금증을 표면 위로 끌어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혼자 또는 공유하며 근린환경에서 살아가는 ‘행태’와 ‘공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1 행태유형별 발생 빈도-시간

대학동 내에서 평일 하루 동안 발생하는 6가지의 행태유형의 그 발생 빈도와 발생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실제로 대학동 청년 1인 가구가 근린환경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지,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1) 행태유형별 발생 빈도-지속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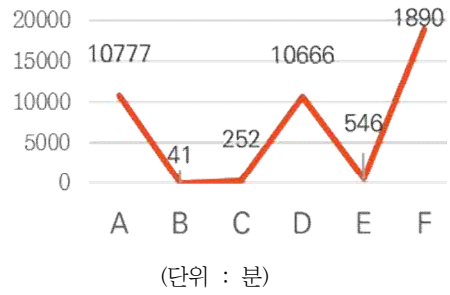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하루 동안 근린환경 내에서 활동한 빈도는, 다른 사람과 공간에 함께 있지만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D유형)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A유형, F유형, B유형, C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1-1)

행태유형이 나타나는 총 시간상으로는, 혼자 쓰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활동하는 경우(F유형)가 가장 오랫동안 나타났다. 그다음이 A유형, E유형, C유형, B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1-2)

〈그림21-6〉의 평균 노드별 지속시간을 보면, 한 공간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F유형, 즉, 혼자만의 개인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경우였다. F유형은 노드에서 공간을 이용하고 활동하는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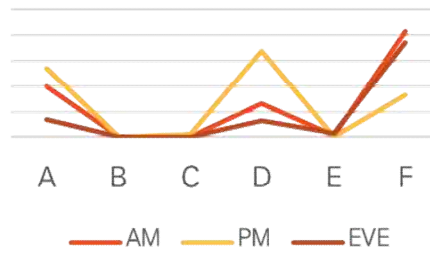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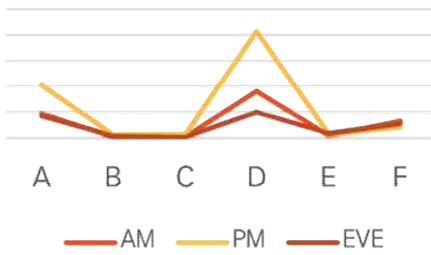
노드별 지속시간이 가장 짧은 유형은, 다른 사람과 간접적으로 장소를 공유하면서 간접 공유활동을 하는 경우(B유형)으로 기록 예시를 들면, 따릉이 정류장에서 따릉이를 대여한 시간을 의미한다.

하루의 시간을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봐도 그 빈도와 시간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1-3, 21-4) 실제로 오전, 오후, 저녁 시간별로는 행태유형이 발생하는 빈도, 즉 활동량에 차이가 있었다.(그림21-5) 이때 오전(AM)은 4시부터 정오, 오후(PM)는 정오부터 20시, 저녁(EVE)은 2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각 8시간씩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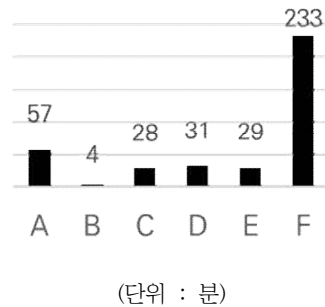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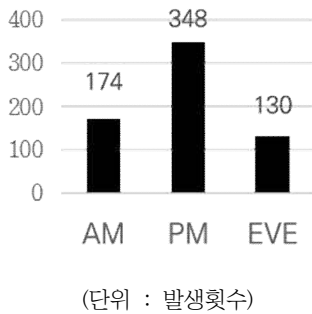
〈그림21-1〉 총 발생 빈도

〈그림21-2〉 총 발생 시간



〈그림21-3〉 시간대별 총 발생 빈도

〈그림21-4〉 시간대별 총 발생 시간



〈그림21-5〉 시간대별 행태유형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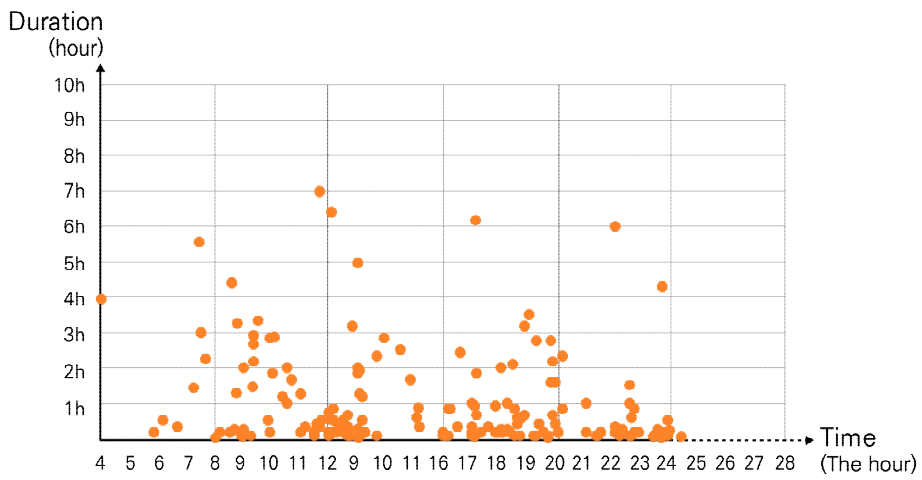
〈그림21-6〉 평균 노드별 지속시간

2) 행태유형별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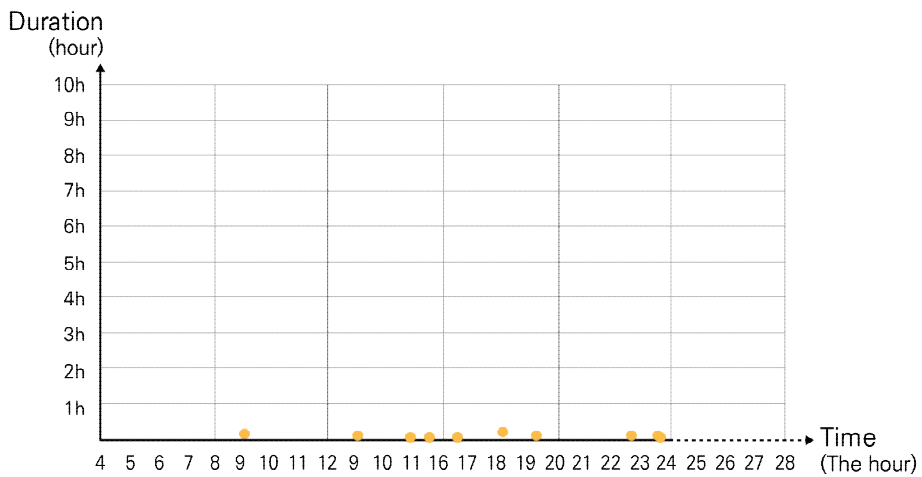
하루 동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행태 유형은 얼마나 많이, 얼마만큼의 지속시간을 가지며 발생하는지 표현한 것이 <그림 22>이다. 6가지의 각 행태 유형별로 그 발생 빈도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어 한눈에 그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x축은 시각, y축은 시간이 된다.

B유형과 C유형은 나머지 행태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눈에 띄게 적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21-1>의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B유형과 C유형은 타자와 다른 시간에 ‘간접’ 활동을 하는 종류의 행태유형이다. 기록된 응답의 한 예시를 들면 공유 모빌리티나, 나눔카를 대여하여 이용한 사례들이 다. 즉, 공유경제 서비스 유형이 근린환경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의 생활에, 비교적 적지만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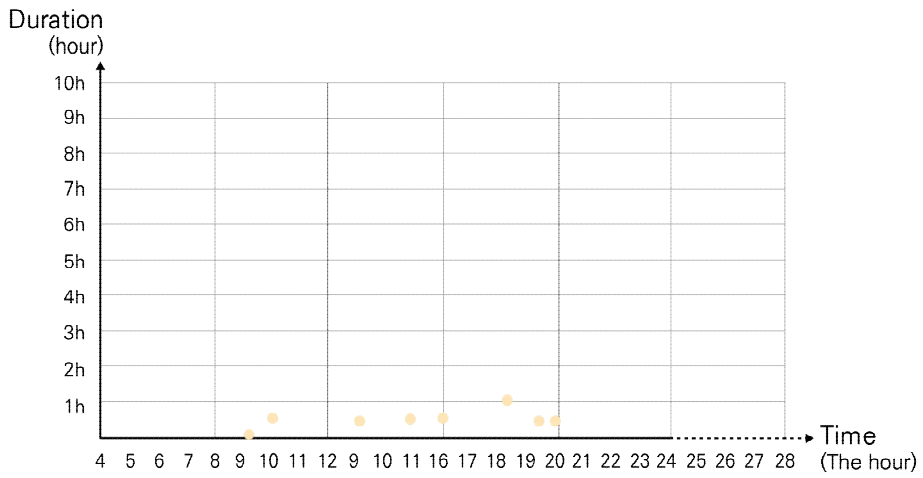
F유형은 앞서 <그림 21-6>에서 확인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긴 지속시간을 보였고 오전과 저녁 시간에 그 분포가 밀집해 있었다. (그림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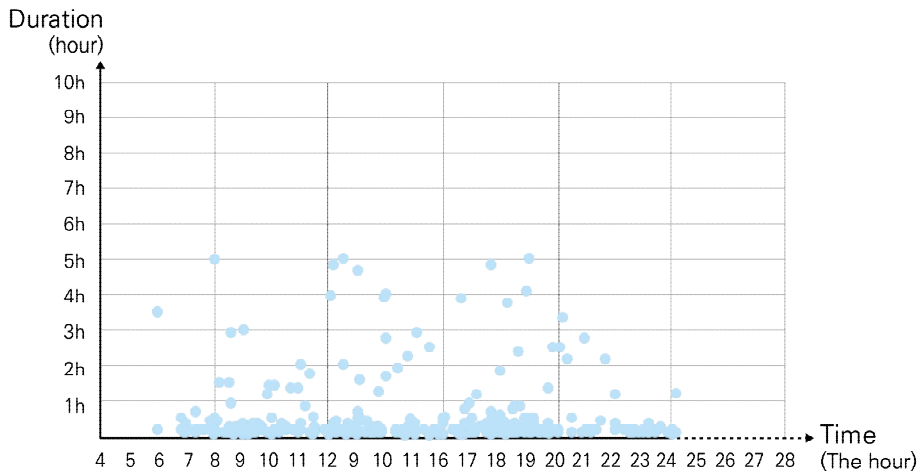
〈그림 22-1〉 A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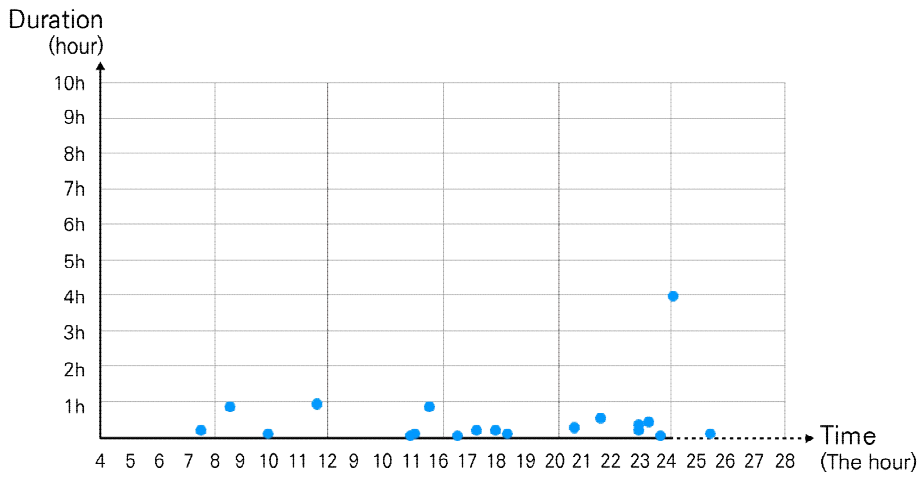
〈그림 22-2〉 B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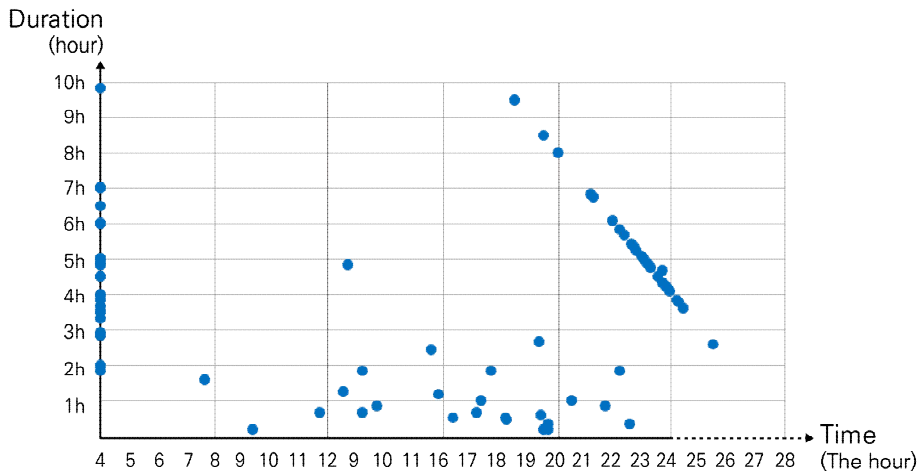
〈그림 22-3〉 C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그림 22-4〉 D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그림 22-5〉 E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그림 22-6〉 F 행태유형 : 일일 시각-지속시간 그래프

4.3.2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혼술, 혼밥 등의 키워드가 유행하고 있을 만큼,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생활 활동을 ‘혼자’하는지 ‘함께’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두는 가치는 크다. 따라서 어렵듯이 알고 있던 실체를 대학동 청년 1인 가구라는 대상을 통해 확인해보므로써, 그들은 하루 동안 어떤 활동을 누구와 어디서 하는지, 정말로 혼자 하는지 함께 하는지,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따라서 몇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높은 공유도에서 개인성이 강해지는 스펙트럼을 가지는 6가지 행태 유형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할 ‘활동’ 항목들은 식사, 음주, 공부, 여가, 이동, 구매, 휴식의 총 7가지다. 식사, 음주, 공부, 여가의 4가지 활동은 설문 양식에서 노드별로 활동 해당 시 체크 표시하도록 하였다. 식사와 음주 활동은 혼술, 혼밥의 트렌트를 실증하기 위함이며, 또한 카공족이 많아지는 요즘 수많은 청년들의 과업인 공부 활동을 연구대상 활동으로 포함하였고, 여가 활동은 스포츠·운동 및 오락·유흥 활동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동, 구매, 휴식 활동은 연구자가 체크 표시하도록 한 활동 이외에 연구참여자의 자유 기술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3가지 활동이다. 실제로 가장 다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활동이 이동이었다. 이동 활동은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과 더불어서, 활동 내용란에 기술되지 않더라도 기록한 공간·시설 정보가 길 혹은 교통수단이면서 이전과 이후의 노드에 공간 변화가 일어난 경우 포함했다. 구매 활동은, 계산할 때 계산원과의 교류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닌, 공간에서 구매라는 활동을 할 때 나와 함께 한 동반인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한다. 이동, 구매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술된 활동 내용이 ‘휴식’이다. 휴식(休息)은 단어 그대로 쉰다는 것인데, 연구참여자가 ‘쉬었다’고 생각하는 노드에서의 행태유형을 밝혀볼 수 있겠다.

1) 행태유형 구성비

여가 활동은 유일하게 모든 행태유형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즉,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여가 활동을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함께’하기도 하고 ‘혼자’하기도 하였고, 공간 역시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혼자’ 쓰는 공간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그 외 활동들의 행태유형 구성은 <그림 2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행태유형 구성비: 활동 공유 여부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식사, 공부, 여가, 이동, 구매, 휴식 활동을 다른 사람과 활동을 함께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음주는 ‘혼술’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는 경우의 비율이 동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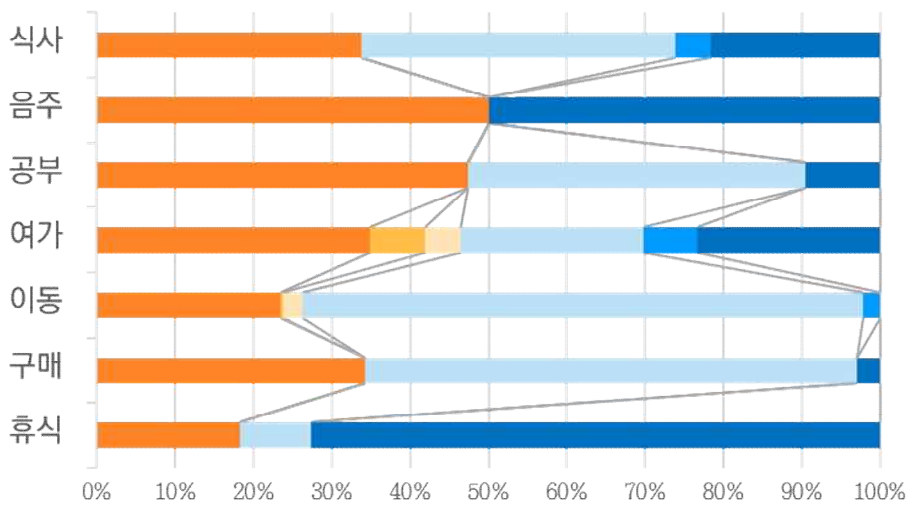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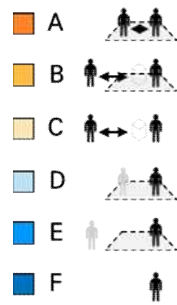
그 외 활동을 혼자서 하였는지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했는지에 대한 활동 공유 여부는 <그림 2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행태유형 구성비: 공간 공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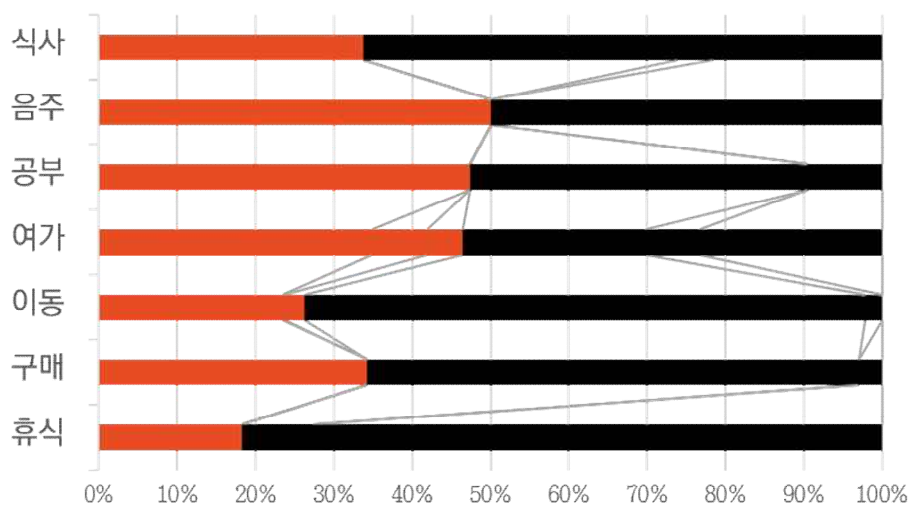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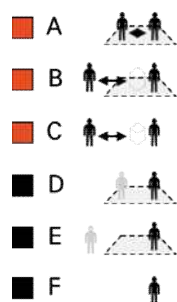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식사, 공부, 여가, 이동, 구매 활동을 오롯이 혼자만의 공간에서보다 공간을 언제나 직간접적으로(동시간·타시간) ‘공유’하는 곳에서 많이 하였다.

휴식 활동은 혼자 쓰는 공간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 외 활동을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곳에서 했는지 혹은 언제나 혼자 쓰는 개인 공간에서 했는지에 대한 공간 공유 여부는 <그림 2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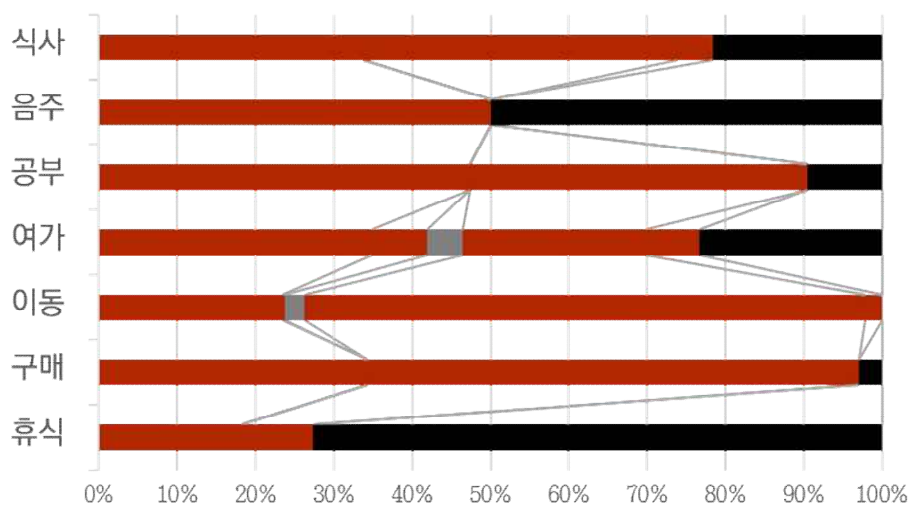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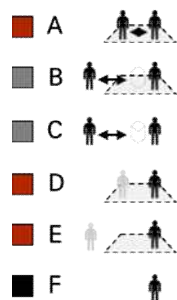


〈그림 23-1〉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 직간접적 공유 활동 ■: 혼자 활동

〈그림 23-2〉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활동 공유 여부



■: 직간접적 공유 공간
 ■: 혼자 쓰는 공간

〈그림 23-3〉 활동별 행태유형 구성비: 공간 공유 여부

4.3.3 소결

-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하루 동안 근린환경 내에서 활동하는 양상은, ‘다른 사람과 공간에 함께 있지만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D유형)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 시간상으로는 ‘혼자 쓰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경우’(F유형)가 가장 오랫동안 나타났다.
- 한 공간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혼자만의 개인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경우’(F유형)였고, 가장 짧게 일어난 활동은, ‘다른 사람과 간접적으로 장소를 공유하면서 간접 공유활동을 하는 경우’(B유형)였다.
- B유형과 C유형은 타자와 다른 시간에 간접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나머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적었다. 이는 공유 모빌리티나, 나눔카 이용 등으로, 근린환경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의 생활에 비교적 적지만 공유경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청년들은 여가 활동을 가장 다양한 형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함께’하기도 하고 ‘혼자’하기도 하였고, 공간 역시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혼자’ 쓰는 공간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A,B,C,D,E,F 모든 행태유형)
-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식사, 공부, 여가, 이동, 구매, 휴식 활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주 활동은 ‘혼술’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의 비율이 같았다.
- 청년들은 식사, 공부, 여가, 이동, 구매 활동을 주로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에서 나타났다. 휴식 활동은 ‘혼자’ 쓰는 공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의 혼자·공유 특성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 적용

4.4 공간 이용 특성

혼자 사는 청년들은 근린환경 내 어떤 공간·시설에서 ‘혼자’ 또는 ‘공유’하는 행태를 활발하게 보일까? 그리고 공간·시설마다 그러한 특성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4.3장과 마찬가지로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를 대학동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청년이 근린환경에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행태’와 ‘공간’ 특성을 심도 있게 밝혀보고자 한다

4.4.1 행태유형별 이용된 공간·시설

근린활동일지 조사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한 공간·시설은 방대했기 때문에 특성을 분석하기 앞서 이용된 공간·시설들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공간·시설이 본래 갖는 용도의 성격이 유사한 1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이용된 공간·시설과 범주화 목록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항목 대표명	소항목	이용된 공간·시설	비고
1	음식점	식당	▪ 일반음식점, 고시식당·고시뷔페, 교내식당	식사·간식 및 식품구매 시설
기호식품		▪ 아이스크림 판매점, 테이크아웃 전용 음식점, 빵집, 가판대		
주점		▪ 호프집		
2	마트	마트	▪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과일가게, 중규모 마트, 편의점	일상용품·식료품 장보기 시설
도소매점		▪ 생필품 판매 도소매점		
3	카페	▪ 카페(커피전문점), 교내 소재 카페		
4	교통수단	▪ 셔틀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나눔카, 회사 차량		
5	길	길	▪ 길, 학내 길	
건물 앞		▪ (응답예시) 00회관 앞, 00분식집 앞, 00서점 앞		
비고정형 공유모빌리티 대여		▪ 길(일레클 렌탈, Swing 렌탈)		
6	공원	▪ 도림천, 관악산 공원, 놀이터		오픈 스페이스
7	체육시설	▪ 헬스장, 중학교 체육관		
8	근린 서비스	▪ 인쇄소, 교내 보건소, 서점, 미용실		
9	직업 연관	직장 및 아르바이트	▪ 사무실, 직장, 아르바이트 시설	직업 직접연관 시설
학교		▪ 교내 건물동(강의실, 랩, 연구실)		
학원		▪ 고시·자격증 전문 학원		
10	학업시설	▪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11	오락유희	▪ 코인노래방		
12	공유 정거장	▪ 나눔카 정류장, 따릉이 정류장		고정형 공유서비스 지정장소
13	남의 집	▪ 남의 집		
14	주거	▪ 내부 공용시설을 포함하는 연구참여자의 집		※ 4.2.1장 4) 참고
15	공유주거	▪ 내부 공용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참여자의 집		

〈표 15〉 실제 이용된 공간·시설 범주화 목록

이용된 공간·시설	이용된 시설 내 구획 공간	
집	개인공간	▪ 1인실, 방
	공용공간	▪ 세탁실, 부엌, 조리시설, 화장실
독서실	▪ 열람실, 다인실, 스터디룸, 휴게실, 로비	
도서관	▪ 열람실, 스터디실, 로비	
교내 건물동	▪ 연구실, 세미나실, 강의실, 로비, 복도	
학원	▪ 강의실, 독서실, 자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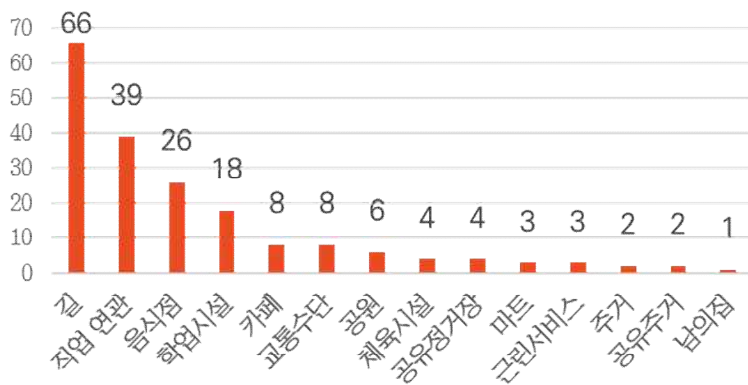
〈표 16〉 실제 이용된 시설 내 구획 공간 목록

연구참여자들은 근린활동일지 설문지에 단일시설 내에서 구획된 공간을 이용한 경우 그 시설과, 구획 공간을 모두 분리해서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제 이용된 구획 공간 목록은 〈표 16〉과 같은데, 이를 통해 하나의 공간·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용도의 구획 공간이 존재할 경우, 다양한 행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3.3장의 iii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1) 행태유형별 이용된 대표 공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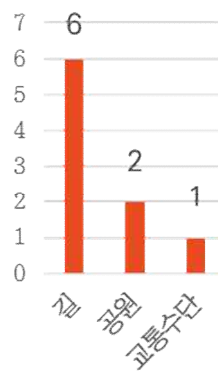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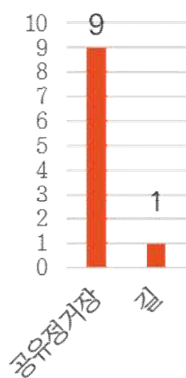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하루 동안 근린 내에서 A유형, C유형, D유형으로 활동한 가장 많은 공간은 길이었다. B유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은 공유 정거장이었다. E유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공유 주거시설, F유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혼자서 이용하는 개인 공간만 있는 주거 시설이었다.

높은 공유도에서 개인성이 강해지는 스펙트럼으로 본 6가지의 행태유형별로 가장 많이 나타난 공간·시설을 순서는 〈그림 24〉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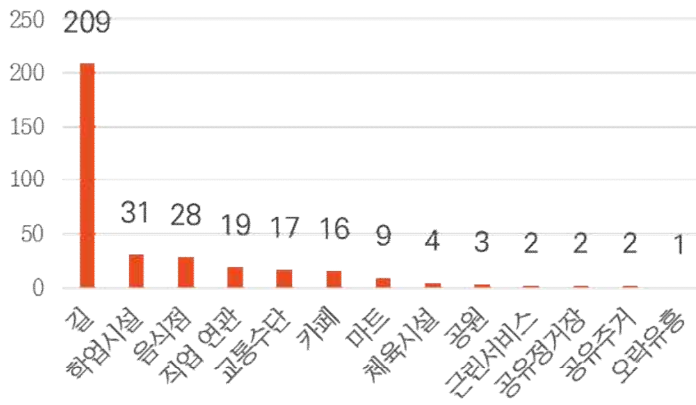
(단위 : 발생횟수)

〈그림 24-1〉 A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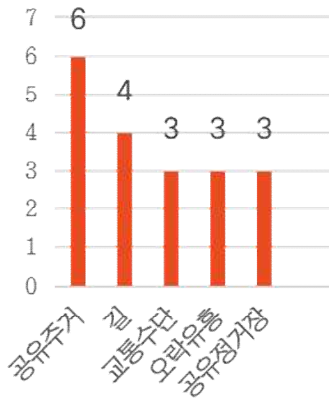


〈그림 24-2〉 B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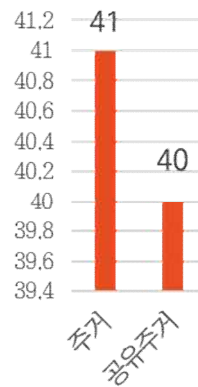
〈그림 24-3〉 C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그림 24-4〉 D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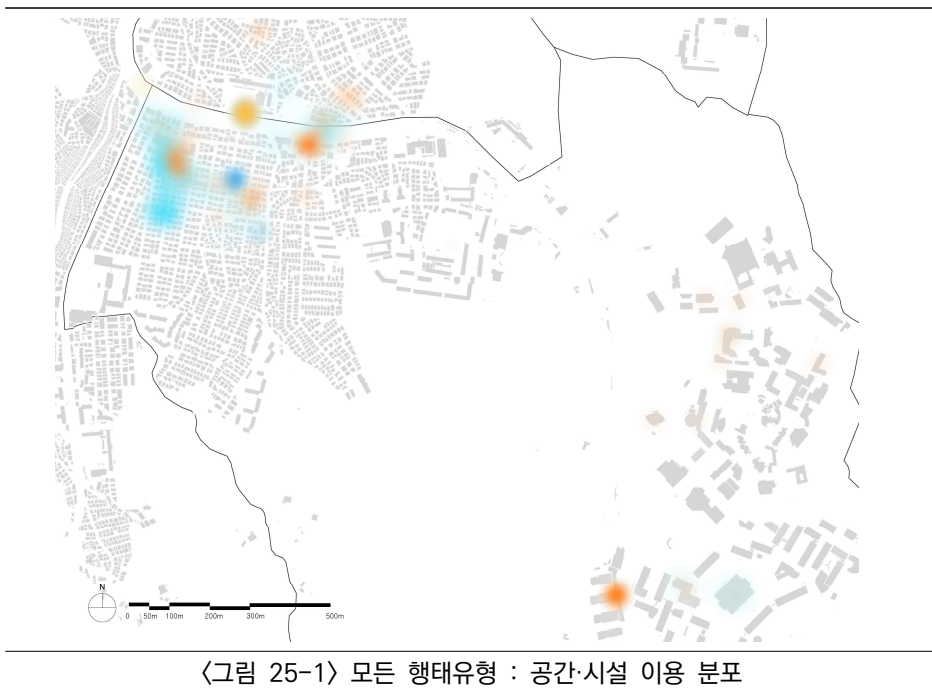
〈그림 24-5〉 E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그림 24-6〉 F 행태유형
: 대표 공간·시설

2) 행태유형별 공간·시설 이용분포

근린활동일지 설문조사로 얻은 데이터에 위치 좌표를 추가하여, 행태유형별로 이용된 공간·시설의 지도에 시각화하여 그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림 25>는 대학동 청년 1인 가구가 근린환경 내에서 공간·시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한 하루 동안의 행태유형의 분포 양상을 열지도 표현한 것이다. 이때 설문 시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거주지 위치 정보를 얻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위치 좌표 입력 과정에서 노드별로 단일 포인트로 기록될 수 없는 동적 활동을 포함되는 길 및 교통수단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길, 공원, 교통수단에서만 나타난 C유형과, 주거 시설 및 공유 주거 시설에서만 나타난 F유형은 맵핑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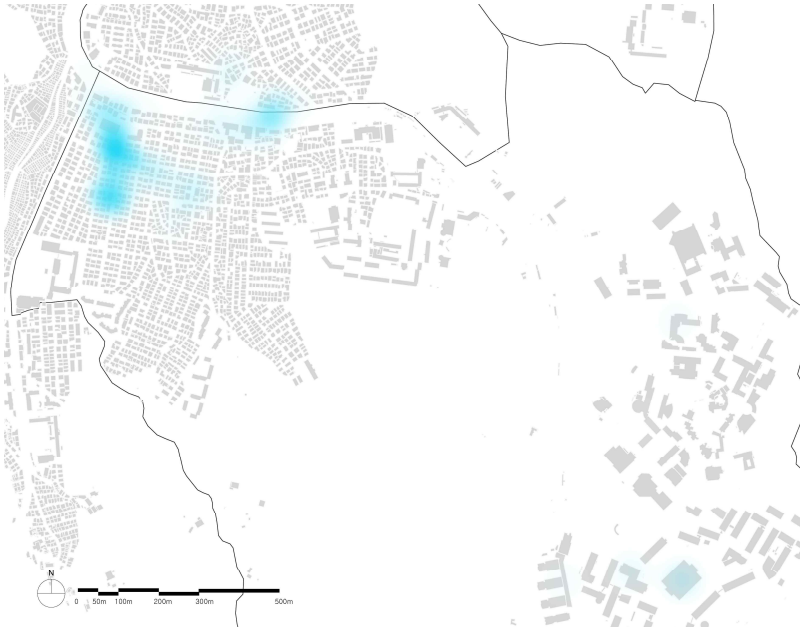




〈그림 25-2〉 A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그림 25-3〉 B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그림 25-4〉 D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그림 25-5〉 E 행태유형 : 공간·시설 이용 분포

4.4.2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비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공간은 현대인의 ‘함께’ 하는 가치를 강조하며 A행태유형, 즉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에서 교류하도록 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간만 함께 쓰는 공용공간으로 한정되어, 실제로 사람들은 그곳에서 ‘혼자’ 활동할 수도 있다. 또한 ‘혼술’하는 공간은 지극히 혼자만의 공간인 집일수도, 다른 사람과 한 공간을 공유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실 수도 있다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도 가진다.

따라서 청년들은 실제 공간·시설마다 얼마만큼 어떻게 혼자 또는 공유하며 생활하는지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림 26>에서는 앞서 15가지로 범주화한 모든 공간·시설에 대해서 6가지 행태 유형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 17>은 공간·시설별로 행태유형을 가지는 응답 활동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 행태유형 구성비

혼자 사는 청년이 이용한 대학동의 공간·시설 중 가장 다양한 행태유형 구성을 보인 공간은 길이었다. 길에서는 A,B,C,D,E 유형이 모두 나타난다. 길에서 청년들은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인 ‘공유’ 활동을 하였고, ‘혼자’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길을 간접적인 공유 활동을 위한 지정된 ‘공유’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가로는 단순한 이동 공간 이상으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생활공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응답 사례에서, 길에서 스터디그룹 모임(출첵스터디)을 한다던가, 중고거래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표 17> 또한 공유 모빌리티를 대여·반납(B유형)하고 이용(C유형)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의 대표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공원, 교통수단, 길은 간접 ‘공유’ 활동을 위해 지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장소로서 이용된다. 즉, C 유형이 발생하는 특징적인 공간이다.

그 외 공간·시설에서의 대학동 청년 1인 가구 행태유형 구성비는 <그림 26-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행태유형 구성비: 활동 공유 여부

혼자 사는 청년들이 이용하는 대학동의 공간·시설 유형 가운데 과반수가 ‘혼자’ 활동을 할 때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징적인 점은 오락·유흥 시설에서는 응답한 모든 청년들이 ‘혼자’ 활동했는데 이는 주거 시설에서 ‘혼자’ 활동하는 경우보다도 높았다.

주거 시설 및 공유 주거 시설³⁵⁾에서는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나, 집의 모든 공간이 혼자서 이용하는 개인 공간인 주거 시설보다도,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공유 주거 시설 내에서 ‘혼자’ 활동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즉, 공유 주거 내에서 ‘함께’ 활동, 다시 말해 교류한 비율은 4%, 그 외 주거 시설 내에서 ‘함께’ 활동한 비율은 4.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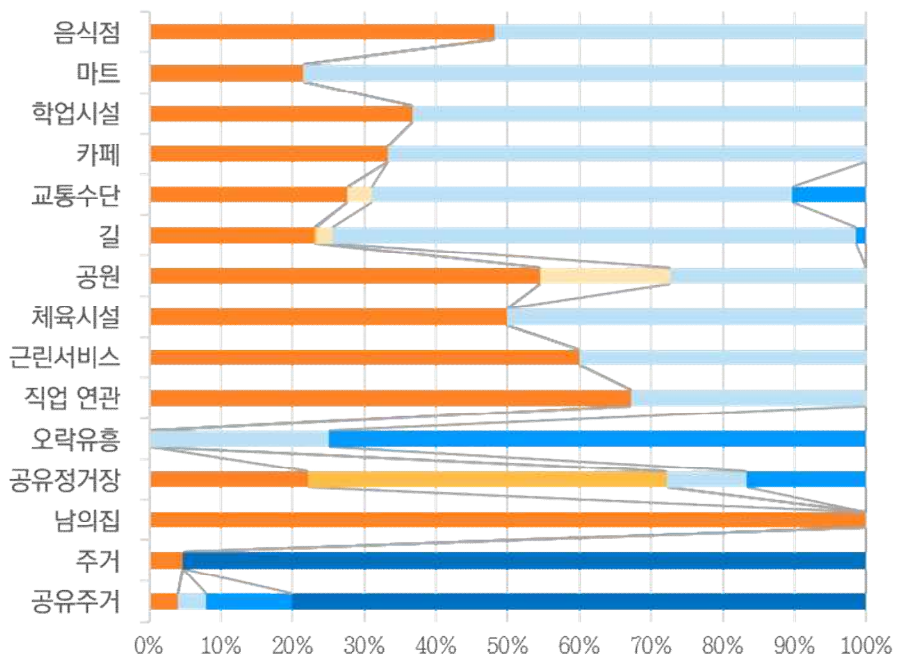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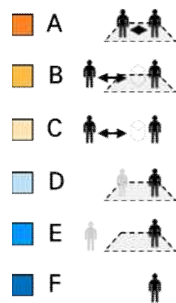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인) ‘공유’ 활동을 할 때 이용되는 장소 비율은 공원이 가장 높았고, 공유정거장, 직업 연관 시설, 근린서비스 시설 순이었다. (그림 26-2) 그 외 공간·시설에서 다른 사람과의 활동 공유 여부는 <그림 26-2>에서 확인 가능하다.

3) 행태유형 구성비: 공간 공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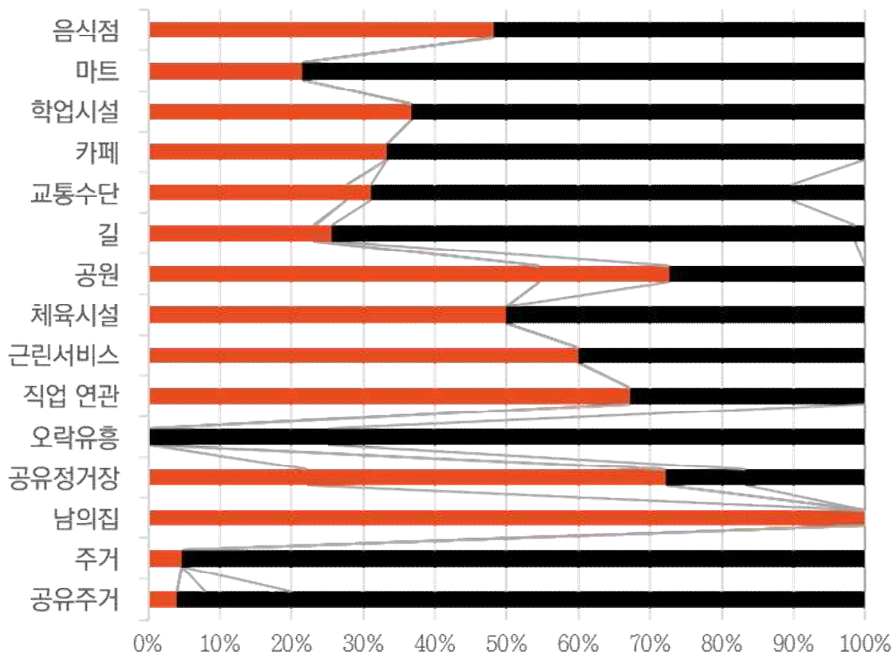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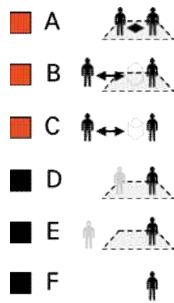
집, 즉 공유 주거 시설과 주거 시설 이외에 모든 공간·시설은 직간접적으로 언제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공유 주거 안에서도, ‘혼자’ 쓰는 개인 공간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였다. (그림 26-3)

35) 주거시설: 내부 공용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참여자의 집/공유 주거시설: 내부 공용 시설을 포함하는 연구참여자의 집으로 한정 (<표 15> 실제 이용된 공간·시설 범주화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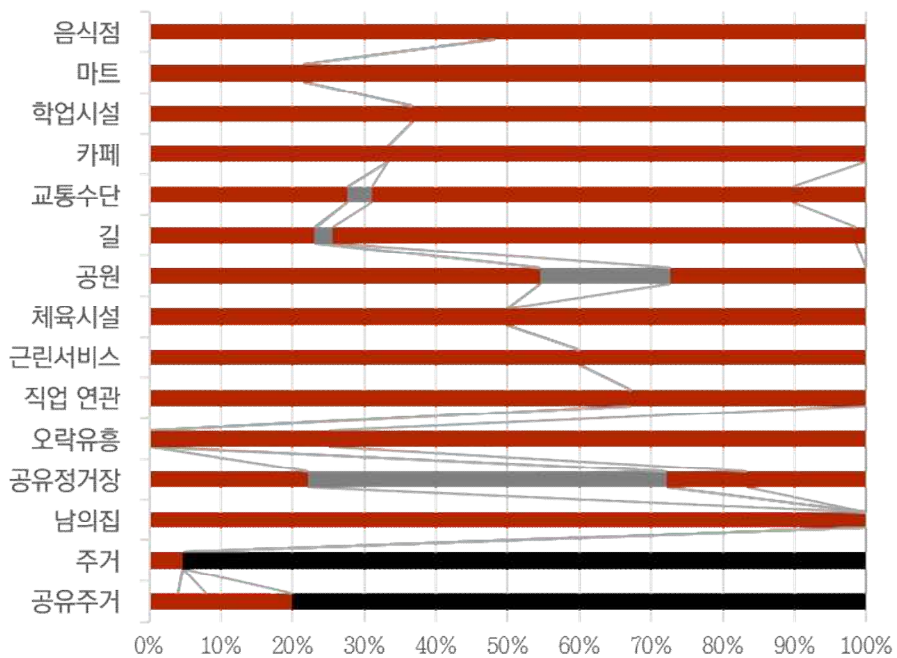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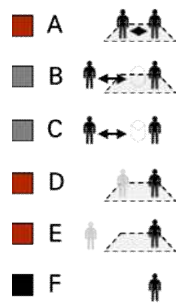


〈그림 26-1〉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비



■: 직간접적 공유 활동
 ■: 혼자 활동

〈그림 26-2〉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비: 활동 공유 여부



■: 직간접적 공유 공간 ■: 혼자 쓰는 공간

〈그림 26-3〉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비: 공간 공유 여부

	구분	행태유형	활동 내용
1	음식점	A	▪ 식사, 구매(간식, 아이스크림), 음주
		D	▪ 식사, 구매(치킨 반마리 등), 포장·테이크 아웃
2	마트	A	▪ 구매(생필품, 과일, 음료)
		D	▪ 구매(생필품, 맥주, 간식 등), 장보기, 식사
3	카페	A	▪ 공부, 커피 테이크 아웃, 대화
		D	▪ 테이크아웃(커피, 음료, 식사), 식사, 공부
4	교통수단	A	▪ 이동, 등교, 귀가
		C	▪ 이동(나눔카)
		D	▪ 이동, 퇴근, 하교, 배달의 민족 구경
		E	▪ 이동(회사차량, 나눔카)
5	길	A	▪ 이동(도보, 공유전동킥보드), 스터디그룹(출책), 중고거래, 산책, 흡연, 대화·수다, 귀가
		B D	▪ 공유전동킥보드 대여
		C	▪ 이동(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D	▪ 이동(도보,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산책, 하교·귀가·출근
		E	▪ 이동
6	공원	A	▪ 여가, 산책, 공유자전거, 이동
		C	▪ 여가, 공유자전거, 이동
		D	▪ 여가, 산책, 공유자전거, 이동
7	체육시설	A	▪ 여가, 운동
		D	▪ 여가, 운동
8	근린 서비스	A	▪ 구매, 근린 서비스(자료 인쇄)
		D	▪ 근린 서비스(머리 컷트)
9	직업 연관	A	▪ 공부(수업 등), 업무·근무, 실험, 질문, 봉사활동
		D	▪ 공부(자습 등), 업무, 휴식, 실험
10	학업시설	A	▪ 스터디그룹(출책, 문제풀이, 모의고사, 영어단어, 오답정리, 자습, 암기, 문제풀이, 답안), 자습, 대화, 질문
		D	▪ 공부, 식사
11	오락유흥	D	▪ 여가
		E	▪ 여가
12	공유 정거장	B	A ▪ 여가, 공유자전거 대여·반납 D ▪ 여가 E ▪ 나눔카 반납
13	남의 집	A	▪ 휴식
14	주거	A	▪ 식사, 여가, 휴식,
		F	▪ 식사, 공부, 여가, 음주, 휴식, 기상·취침, 외출준비 등
15	공유 주거	A	▪ 세탁, 기상
		D	▪ 세탁물 수거, 요리
		E	▪ 식사
		F	▪ 여가, 식사, 공부, 휴식, 기상, 외출준비 등

〈표 17〉 공간·시설별 행태유형 구성과 응답한 활동 내용

4.4.3 소결

-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하루 동안 근린 내에서 A유형, C유형, D유형으로 활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된 공간은 ‘길’이었다. B유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시설은 ‘공유정거장’이었다. E유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공유 주거시설³⁶⁾’이었으며, F유형은 집에 혼자 이용하는 개인 공간만 있는 ‘주거시설’이었다.
- 대학동의 길은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특성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활공간이었다. 길에서 청년들은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인 ‘공유’ 활동을 하였고, ‘혼자’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길을 간접적인 공유 활동을 위한 지정된 ‘공유’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A,B,C,D,E유형)
- 공원, 교통수단, 길은 간접 ‘공유’ 활동을 위해 지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장소로서 이용된다. (C유형 발생)
- 청년들이 이용하는 대학동의 공간·시설 유형 중 과반수가 ‘혼자’ 활동을 할 때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락·유흥 시설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혼자’ 활동했다. 주거시설 및 공유 주거시설에서는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공유 주거 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한 비율이 주거시설 내에서 ‘함께’ 활동한 경우보다 적었다.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인) ‘공유’ 활동을 하는 경우 이용되는 장소는 공원, 공유정거장, 직업 연관시설, 근린서비스 시설 순으로 높았다.
- 청년들은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공유 주거 안에서도, ‘혼자’만 이용하는 개인 공간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였다.

36) 주거시설: 내부 공용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참여자의 집/공유 주거시설: 내부 공용시설을 포함하는 연구참여자의 집으로 한정 (〈표 15〉 실제 이용된 공간·시설 범주화 목록)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의 혼자·공유 특성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 적용

4.5 비공간 특성

4.5.1 실제공간-인터넷공간 행태유형 상관관계

O2O(Online to Offline)는 단어 그대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으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공간과 실제 현실 공간이 오프라인의 경계선이 흐려짐을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이다.³⁷⁾ 이렇게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다른 시간에 현실로 이어지는 타시적 상관성이 어떻게 얼마나 나타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 동시에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경우, 실제로는 어떤 행태유형에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시적 상관관계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타시적, 동시적 상관관계 분석은 근린활동일지 설문조사(Part 2-1)와 인터넷 공간 활동일지 설문조사(Part 2-2)에 기록된 활동 내용과 현실 공간에서의 노드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때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태유형은 실시간 메시저 등을 대학동 이웃과 어떤 실제공간 노드에서 접속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모두 인터넷에서 타시간에 다른 사람과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공유활동이 가능한 B유형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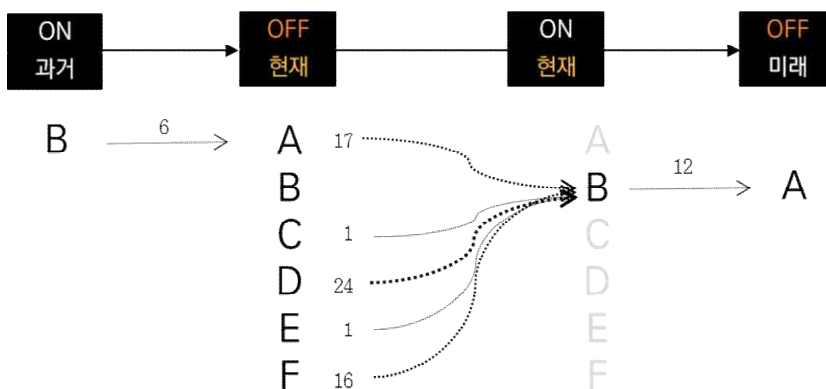
37) Naver 제공, 지식백과, 용어로 보는 IT

1) 동시적 상관관계

청년들이 대학동 근린이라는 현실 공간에서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는 ‘공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만 혼자서 활동할 때’, 즉 D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혼자’ 활동하고 있을 때(D,E,F유형)가 41건으로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 공유 활동을 하고 있을 때(A,C유형, 18건)보다 인터넷 이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자 쓰는 공간에서보다(F유형, 16건) 직간접적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에서(A,D,F유형, 42건) 인터넷 이용이 더 활발했다. 사례의 내용은 <표 18>과 같다.

2) 타시적 상관관계

대학동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O2O(Online to Offline)의 사례, 즉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오프라인의 만남(A유형)으로 이어지는 타시적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현실 노드의 A유형으로 이어지는 타시적 관계는 18건이 있었다. 이 중에서 과거의 인터넷활동을 통해 현재의 실제 공간의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6건, 현재의 인터넷 활동을 통해 이후에 현실 공간에서 만남을 약속한 경우가 12건이다. 기록된 사례에 대한 내용은 <표 18>과 같다.



<그림 27> 오프라인-온라인 행태유형 상관관계 Diagram

상관 관계 구분		공간적 범위	기록 설문지	기록된 사례 내용
		오프라인 ↔ 온라인		
동시적	행 태 유 형	A ↔ B	Part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동여지도 접속 (9건) 배달 어플 접속 (2건) 고시·자격증 관련 다음카페 접속 (2건) 공유 모빌리티 어플 접속 (1건) 대학 커뮤니티 어플 접속 (2건)
			Part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모빌리티 어플 접속 (1건)
		C ↔ B	Part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모빌리티 어플 접속 (1건)
		D ↔ B	Part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동여지도 접속 (16건) 배달 어플 접속 (1건) 고시·자격증 관련 다음카페 접속 (3건) 대학 커뮤니티 어플 접속 (2건) 지역 상점 구매 어플 (1건)
			Part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동여지도 접속 (1건)
		F ↔ B	Part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동여지도 접속 (16건)
타시적		B → A (현재→미래)	Part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9동여지도 접속하여 실제 모임·만남 결정 여부 체크 (9건)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 (2건) 대학 커뮤니티 어플 접속하여 중고거래 만남 약속 (1건)
		B → A (과거→현재)	Part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자격증 관련 다음카페 통해 스터디그룹 만남 기록(2건)
			Part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동여지도를 통해 현재 중고거래 만남을 하였다고 활동 내용 기록 (3건) 대학동 소재 학원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현재 스터디 모임을 하였다고 활동내용 기록 (1건)

설문지 Part 2-1 : 근린활동일지

설문지 Part 2-2 : 근린활동일지 (인터넷 공간 활동일지)

〈표 18〉 실제 공간-인터넷 공간 행태유형 상관관계 사례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나는 ‘혼자’ 또 ‘공유’하는 양가적 생활문화 현상을 실제 삶의 공간에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공간적 논의는 공간을 따로 또 같이 이용하는 인간의 다층적인 행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태와 공간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논리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는 공간 공유 여부, 활동 공유 여부, 공유 방식의 3가지 논리를 토대로, 알고리즘과 매트릭스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6가지 행태 유형이 도출되었다.

A유형은 다른 사람과 공간에서 교류하는 유형, B유형은 다른 사람과 한 공간과 활동을 다른 시간에 간접 공유하는 유형, C유형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나 활동을 간접적으로 공유하는 행태유형이다. D유형은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 있지만 혼자서 활동하는 유형, E유형은 다른 사람과 타시간에 함께 쓰는 공간에서 현재 혼자 활동하는 유형, F유형은 어느 것도 공유하지 않는 지극히 혼자 쓰는 공간에서 혼자 활동하는 유형이다.

행태유형은 차례로 활발한 공유관계에서 점차 개인성이 강해지는 스펙트럼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인터넷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공간 공유 여부의 관점에서만 보면 A,D,E유형은 직간접적 공유 공간, F유형은 혼자 쓰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간관계 공유 여부의 관점에서만 보면 A,B,C유형은 직간접적 공유 활동, D,E,F유형은 혼자 활동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6가지 행태유형을 가지는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는 혼자 사는 청년이 많은 동네인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에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린활동일지 조사를 통해 적용하였다. 총 30명의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평일 하루에 이용한 모든 공간·시설과 활동인 노드 정보를 설문양식에 맞춰서 기록하도록 하였고, 실제 노드와 함께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도 기록하는 인터넷 공간 활동일지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동 청년 1인 가구가 근린 내에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특성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의 인간 활동에 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하루 동안 근린환경 내에서 활동하는 양상은, '다른 사람과 공간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만 혼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D유형)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혼자 쓰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경우'(F유형)가 가장 오랫동안 나타났다.

B,C유형은 타자와 다른 시간에 간접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나머지 유형에 비해 비교적 발생빈도가 적긴 하나, 이는 공유 모빌리티나 나눔카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근린환경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의 생활에 공유경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식사, 공부, 여가, 이동, 구매, 휴식 활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주 활동은 '혼술'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의 비율이 같았다.

청년들은 식사, 공부, 여가, 이동, 구매 활동을 주로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에서 나타났다. 휴식 활동은 '혼자' 쓰는 공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가 활동에서 가장 다양한 행태유형으로 보였다.

둘째,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의 공간 이용에 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근린 내에서 A유형, C유형, D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공간은 '길'이었다. B유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은 공유정거장이었고, E유형은 공유 주

거(내부에 공용시설을 포함하는 연구참여자의 집), F유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곳은 주거시설(내부에 공용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참여자의 집)이었다.

청년들이 이용한 과반수의 공간·시설 유형이 ‘혼자’ 활동하며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오락·유흥 시설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혼자’ 활동했다. 주거시설에서는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공유 주거(내부에 공용시설을 포함하는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한 비율은 주거시설(내부에 공용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함께’ 활동한 경우보다 적었다. ‘공유’ 활동을 할 때 이용되는 곳은 공원, 공유정거장, 직업 연관시설, 근린서비스시설 순으로 높았다.

청년들은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공유 주거 안에서도, ‘혼자’ 쓰는 개인 공간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였다.

대학동의 ‘길’은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특성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활공간이었다. 길에서 청년들은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인 ‘공유’ 활동을 하였고, ‘혼자’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길을 간접적인 공유 활동을 위한 지정된 ‘공유’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공원, 교통수단, 길은 간접적인 공유활동을 지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장소에서 ‘공유’하는 곳으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대학동 청년 1인 가구의 비공간적 특성이다.

청년들이 대학동 근린 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는, ‘공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만 혼자서 활동할 때’(D유형)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혼자’ 활동하고 있을 때(D,E,F유형)에 다른 사람과 직간접적 공유 활동을 하고 있을 때(A,C유형)보다 인터넷 이용이 활발했다. 그리고 혼자 쓰는 공간에서보다(F유형) 직간접적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에서(A,D,F유형) 인터넷 이용이 더 활발했다. 또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현실에서의 만남이 이어지는 경우 O2O(Online to Offline)의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근린활동일지 설문조사는 연구참여자의 응답에 의존하는 정성적 연구로, 정보의 객관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활동 주체의 응답이 있었기에 노드별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공간·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했다. 실제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한 모든 공간·시설인 노드는 총 652개로, 표본량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행태 기반 연구로, 연구자가 제시한 행태유형이 미시적 혹은 거시적 차원의 물리적 공간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해석해봄은 추후 과제로 남아있다.

- 본 연구는 각종 공유의 움직임과 공유공간 계획이 쏟아져 나오는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 A 행태유형, 즉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에서 교류하는 경우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가지는 많은 수단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를 사례로 한 본 실증연구를 통해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과 공간 이용 양상은 매우 다변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A유형을 지향하며 계획·양산하는 공간이 정답이 아님을 시사한다.

- 실제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청년 1인 가구가 철저히 고립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기회에 노출된 채로 혼자 활동하기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 주거시설(내부에 공용시설을 포함하는 집)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한 비율이, 주거 시설(내부에 공용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집)에서 함께 활동한 경우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러한 현상을 명확히 대변한다.

- 심지어 그들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도 활동을 공유하기도 한다. 공유경제가 현대 사회의 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아가면서, 실제 대학동 청년 1인 가구들은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나눔카 등을 일상화하며, 알지 못하는 익명의 타자와 다른 공간에서 간접적으로 활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혼자 활동하고 있을 때 인터넷이라는 공유공간에 접속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할 때보다 훨씬 빈번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긴 청년 1인 가구에게, 직접 대면하여 교류하는 개념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의 공유문화는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그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

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을 재고해보도록 한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같이 있지만 외로울 수 있는 모순된 현대 사회 모습을 입증해 보이는 부분이다.

·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때, 마치 공유의 정석이라고 생각했던 공유공간에서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과의 사회적 교류는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진 않다. 대학동의 혼자 사는 청년들은 실제 모르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스스로 주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만남은 주로 길, 즉 가로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길에서 스터디그룹 모임(출책스터디)을 한다던가, 중고거래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대면의 기회는 드물더라도 청년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공유 서비스인 공유 모빌리티를 통해 간접적인 사회적 교류를 맺었고, 그 대표적인 장은 길이었다. 대학동의 청년 1인 가구에게 가로는 단순한 이동 공간 이상으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생활공간이었다. 앞으로의 공유 공간은 타자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에 국한된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길과 같은 오픈스페이스와 더불어 비대면 방식의 공유 개념으로도 사고를 넓혀 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행태와 공간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선 안된다. 연구자가 제시한 다각도의 해석 방법인 행태-공간 논리 분류체계는 본 연구를 통해서 추후 확장된 인간 대상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 체계는 앞으로 인간이 공간을 따로 또 같이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생활공간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부 록

IRB No. 1905/002-013

유효기간: 2020년 5월 12일

연구참여자 번호

Part 1. 일반설문지

A- 귀하께서 대학동을 주요 생활공간으로 하여 혼자 거주하고 계신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A1	나이	()년생 ()세			
A2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A3	직업	<input type="checkbox"/> 고시생 <input type="checkbox"/> 취업준비생(고시 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A4	거주 유형	개인시설	공용시설	선택 1	선택 2
		침대	부엌, 세탁기,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원룸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침대	세탁기,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고시텔
		침대, 화장실	세탁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셰어하우스, 하숙
		침대, 부엌, 세탁기, 화장실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Version 1.1.(2019.5.13.)



설문 양식 Part 1. 일반설문지

Part 2-1. 근린활동일지

Day	<input type="checkbox"/> 1일차
날짜	2019년 ()월 ()일
요일	<input type="checkbox"/> 월요일 <input type="checkbox"/> 화요일 <input type="checkbox"/> 수요일 <input type="checkbox"/> 목요일 <input type="checkbox"/> 금요일 <input type="checkbox"/> 토요일 <input type="checkbox"/> 일요일

(①=내가 교류한 사람 수, ②=(구획된) 해당 공간에 있던 사람)

노 드	공간/시설 이름	공간/시설 종류	구획된 공간종류 (현물시)	①	②	활동내용	시작시간	마감시간	동네 해당 여부
1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2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3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4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5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6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7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8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9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10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11				없음	없음	밥 술 학업 여가	:	:	
					있음				

Version 1.1.(2019.5.13.)



IRB No. 1905/002-013

유효기간: 2020년 5월 12일

연구참여자 번호

노 드	공간/시설 이름	공간/시설 종류	구획된 공간종류 (해당시)	①	②	활동내용				시작시간	마감시간	통제 책임 여부
12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13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14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15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16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17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18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19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0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1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2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3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4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Version 1.1.(2019.5.13.)



설문 양식 Part 2-1. 근린활동일지

IRB No. 1905/002-013

유효기간: 2020년 5월 12일

연구참여자 번호

노 드	공간/시설 이름	공간/시설 종류	구획된 공간종류 (해당시)	①	②	활동내용				시작시간	타난시간	동네 책임 여부
25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6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7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8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29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30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31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32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33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34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35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36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37				없음	없음	법	술	학업	여가	:	:	
					있음							

Version 1.1.(2019.5.13.)



설문 양식 Part 2-1. 근린활동일지

연구참여자 번호

Part 2-2. 근린활동일지 (인터넷 공간 활동일지)

Day	<input type="checkbox"/> 1일자
날짜	2019년 ()월 ()일
요일	<input type="checkbox"/> 월요일 <input type="checkbox"/> 화요일 <input type="checkbox"/> 수요일 <input type="checkbox"/> 목요일 <input type="checkbox"/> 금요일 <input type="checkbox"/> 토요일 <input type="checkbox"/> 일요일

① 9동여지도

노드번호	접속시간	접속중 실시간 댓글/쪽지 대화내용 여부	실제 모임/만남 결장 여부
1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2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3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5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6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7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8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9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0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1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2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3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4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5	()분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② 배달어플

노드번호	배달 품목	어플명
1		
2		
3		
4		
5		

③ 카톡, 문자, 기타 메신저, 전화 사용시간
(*대학동 이웃과의 소통 경우만)

	카톡	문자	기타	전화
없음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기타 메신저 종류 : { }				

④ 그 외, 대학동 이웃과 인터넷 공간에서 직·간접적 교류 사례

노드번호	인터넷 공간을 통한 교류 사례(공간명, 활동내용)
1	
2	
3	
4	
5	

참 고 문 헌

- 정민우, & 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130-175.
- Oldenburg, R. (1997). Our vanishing third places. Planning Commissioners Journal, 25(4), 6-10.
- Chapman, T. (2006). Public Space.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 김혜인. (2018). 카페 공간의 사용화 (私用化)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영임. (2017).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이용자 만족도 및 사회적 교류 영향구조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 인가구 현황 및 도시 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 안진아. (2017).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편] 싱글 라이프. 이제 여기 그 너머, 142-147.
- 한상엽. (2016). '공유의 시대', 유행이 아니라 문화다!. FUTURE HORIZON, (27), 18-21.
- 노혜진. (2018). 청년 1 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서울역사박물관. (2015). 신림동: 대학동, 청운의 꿈을 품은 사람들, 서울 생활문화자료조사, 1-464
- 서울역사박물관. (2015). 신림동 청춘: 고시촌의 일상(Sillim-dong Youths, Toil today, Success tomorrow),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 신림동 청춘 전시도록, 1-108.

- 최준환, 박서준, & 이도훈. (2016). 1 인 가구 공유 주택의 공유 공간 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 외 공유 주택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7(5), 1-10.
- 박형수. (2013). 공유문화로서의 쉐어하우스 (Share house). 건축, 57(11), 27-31.
- 황미영. (2018). 공유문화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공간의 설계요소 및 인프라 체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2), 86-97.
- 지예진, & 신화경. (2017). 청년 1 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9(1), 145-150.
- 임지수, & 권오정. (2016). 청년 1 인 가구를 위한 생활공유형 쉐어하우스 탐색과 발전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8(2), 240-245.
- 장수정, 이혜수, & 황연숙. (2016).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공유공간 사례 분석 연구.
- 오이현, & 유진상. (2016). 쉐어하우스 내부 공유공간· 개인공간 사례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5-174.
- 김도연. (2015). 공유주택 공급 및 계획기준 설정 방안연구: 국외 공유 주택의 제도적 특성분석과 국내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6(1), 139-150.
- 조영수, & 김은비. (2016).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공유 주택 운영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3), 501-513.
- 윤정혜. (2002). 세계 공유집합주택의 사례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주경, & 권영상. (2019).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통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설계 공동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 55-71.

- 황은경, 박근수, & 김수암. (2008).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12), 77-84.
- 양천규, & 이동배. (2004). 국내 단독주택의 공적공간·사적공간 구성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4(2), 127-130.
- 신병윤. (2016). 초량이바구길의 공적·사적 공간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3), 9-20.
- 문근이, & 류호창. (2013). '제 3 의 공간'으로서 카페의 공간연출 전략에 관한 연구:'길 (street) 문화'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5), 68-77.
- 이현우, & 박소현. (2017). 현대도시 보행공간의 시각화를 위한 기초연구: 외부공간의 보행자 통행 가능성 판별기준을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3(12), 93-103.

Abstract

Characteristics imbedded in 'alone' or 'together' spaces of everyday lives used by young single household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 A case study of Daehak-dong in Seoul applying new behavior-space logic system

Je, Hyo-yeon

Graduate Program Of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in Korea, there has been ambivalent cultural phenomenon of “alone” or “sharing” which can be explained as ‘alone but not alone’, and ‘separately and together’.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new words have emerged to represent the culture of ‘alone’ such as Hon-bap(eating alone) and Hon-sul(drinking alone), and a culture of ‘sharing’ such as co-living and

social-dining has also appeared. In addition, online networking such as SNS and the sharing economy that practices cooperative consumption are very common in modern society. This phenomenon is prominent especially in the younger generation expressing their identity by producing new words related to this. There are a lot of cases in which these words contain spaces in them, such as 'House' of Share House and 'Coin Karaoke' of Honkono(Using Coin Karaoke alone). Thus, the cultural phenomenon of 'alone' and 'shar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ing space, which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illuminate that to the spatial extent.

However, the sharing space that is being discussed as one of the subjects of this phenomenon often does not reflect the various values of the 'together' movement of the people living 'alone', and it is often limited to space only 'used' in common. In addition, people who want to drink 'alone' can find a house that is extremely private, but they can look for a public space such as bar physically sharing a space with others. Considering this essential nature of human beings, it is difficult to read complex characteristics of space simply by dichotomizing it.

Until now, however, the space used by humans has defined as a private space, a personal space, a shared space, a public space, a common space, even a third space, and a threshold space and so on. These terms are difficult to deal with the phenomenon, and have a limitation that can be used in various perspectives depending on the schola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new interpretation method that deeply understands the lifestyle of human being 'alone' or 'sharing' in space. And this methodology is applied to the Daehak-dong area in Seoul as a case of young people 's life space, trying to analyze empir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single household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The proces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oretically review the concept and spatial discussion of the ambivalent cultural phenomenon. Through this, the study can set up the logic of a new spatial classification system. Second, based on the logic of researchers deriv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this study set up a behavior-space logic system. Lastly,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new methodology of behavior-space logic classification system by applying, examining and analyzing this in the Daehak-dong neighborhood environment densely populated by young single households and inquire into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m.

The behavior-space logic system is composed of algorithms and matrices based on the logic derived from theoretical considerations. As a result, six behavior-space types are derived. Type A is the case of interacting with others in one space at the same time. Type B is an indirect sharing of space and activity with others at another time. Type C is an indirectly sharing the same activity at another time with the other but not sharing the space. Type D is a case of sharing the space at the same time with the other but acting(behaving) alone. Type E is an indirect sharing of space, which means currently alone in a space that is shared with the other. Type F is a type of not sharing anything. Six behavior-space types can be seen as spectrums that gradually become stronger personalities from an active sharing relationship.

The 'Neighborhoods activities log' survey is conducted for applying the behavior-space logic system to the target area and the subjects. 30 participants listed all the spaces, facilities, and activities that they used or did on a weekday in order. It becomes a node containing a lot of information. In addition, The 'Internet space activities log' is conducted recording activities in the Internet space on a same day along with the nodes in the actual space.

The results are viewed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it is a characteristic of human activity. The behavior-space types,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them in the neighborhood are investigated during the day by the young people living alone. And the proportion of behavior-space types are examined which appear in the seven types of 'activities': meal, drinking, study, leisure, moving, purchasing, and rest. Second, it is a space use characteristic. Used space/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during the day by the young single households by each type of behavior-space are investigated. In addition, by the space/facility type used by participants, the ratio of the six behavior-space types are examined. Lastly, the behavior-space type correlation between real space and internet space is investigated. In other word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simultaneous correlation of behavior-space type and internet space access in real nodes of young people and the case of non-simultaneous correlation, related to the O2O(Oline to Offline) which is the activity of the Internet space leads to the meeting in the real space are investigated.

This study started with expectation of A behavior-space type in personalized modern society where various sharing movements and shared space plan are pouring out. However, this empirical study with the case of young single households has determined that the lifestyle and space utilization patterns of modern society are very diversified. This suggests that planning and production of the space, which is oriented toward Type A, is not the correct answer. Actually, young people who live alone in the Daehak-dong are physically located in the same space as others, but they act separately most of the case.

Even young people living alone in Daehak-dong have shared their activities without sharing space. As the shared economy has become a living culture of modern society, they have been practicing sharing

e-kickboard, bicycle, and car sharing activities indirectly with unknown people in other spaces. Also, accessing the Internet when actually working alone was much more frequent than when doing activities with others. It is a reflection on the contradictory modern society that can be alone but not lonely, together but lonel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as a basic research that verifies the applicability of the behavior-space classification system as a extended human model, which is a multidimensional interpretation method proposed by the researcher.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useful in designing the living space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rough an in-depth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escaping from the dichotomy of the behavior and space.

keywords : Behavior–Space logic system, Alone together,
Shared space, Young single households, Residential neighborhood
Student Number : 2017–25314